

독자들의 '기호'에 맞는 언론으로 8000호 지역사회 곧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풍파 견뎌낸 소나무 연리지처럼... 앞으로 정진하리 한국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간 월미산 중턱에 우뚝 선 소나무 연리지. 모질고 긴 생명력만큼이나 두터운 감옥을 두른 모습이 척박한 지역언론의 환경에서도 굳건히 '정론직필'의 외길을 걸어온 기호일보의 모습을 담았다. 6월 2일자로 지령 8천 호를 맞은 기호일보는 앞으로도 주민과 더욱 밀착해 보다 올곧은 저널리즘을 실현, 돌이 하나가 돼 하늘 높이 치솟은 소나무의 모습을 담아 갈 것이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사람이 힘이다

특집 지면 ▶9~20
오늘 28면 발행합니다

언론의 암흑기, 언론자유 의 염원에 힘입어 탄생한 기호일보가 오늘(6월 2일)자로 지령 8천 호를 맞았다.

1980년대 군부독재에 의해 자행됐던 '언론 통제'와 지역신문을 관보지로 전락하게 만든 '1도 1사' 정책에 맞서 본보의 전신인 경기교육신문을 모태로 기호일보는 1988년 7월 20일 지령 1호를 발간했다.

이후 8천 호까지 지면에 담아낸 28년의 기록은 인천과 경기지역의 산역사다.

그동안 인천·경기지역 주민을 위한 올곧은 대변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기호일보는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저널리즘을 실현,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정부패에 맞서면서 힘없고 약한 이웃과 소외된 자의 곁을 지켜왔다.

특히 이달 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지는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를 주관하는 기호일보는 중국의 날과 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등 빅 이벤트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올해로 12화째를 맞는 '청소년 통일업원 문화예술대회'를 통해 미래의 주역에게 통일의 꿈을 심어 주고, 매년 사회복지대상과 참일꾼을 선정, 지역주민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있다.

그 결과 인천·경기 주민들의 신

뢰와 사랑으로 6년 연속 지역신문 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언론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기호일보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할 것이다. 항상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지역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기호일보가 지령 8천 호를 넘어 1만 호, 8만 호, 80만 호가 되는 그 날까지 더욱 강직한 모습으로 '정론직필'을 펼칠 것을 독자 여러분께 다짐한다.

지면대 기자 jus216@kihoilbo.co.kr

'돈 새는 SPC' 지분 빨리 정리하라

[기획] 눈에 빠져버린 인천시 특수목적법인 SPC 개선방안은 뭔가 <후>

시·도시공사 등 사업성 검토
미래 없으면 구조조정 나서고
지분참여 20% 이상으로 조정
감독권 갖고 방만운영 제어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특수목적법인(SPC)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SPC가 가진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인천시 등이 사업 필요성 때문에 지분 참여를 하는 만큼 SPC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 인천로봇랜드(주)와 서울일 반산업단지개발(주) 등은 인천도시공사가 지분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로봇랜드는 사업성이 낮아 민자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고, 서울산단은 사업 주체가 계양구라 특별히 도시공사가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서다.

하지만 기존 사업에 참여하는 SPC 임직원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시에선 사업 철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로봔랜드의 경우 드론산업단지 등으로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산단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상태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있음에도 SPC를 청산하는 과정에 온정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눈초리가 따갑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성과가 나지 않는 곳은 과감히 정리해야 하지만 SPC 임직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이해관계가 얽힌 부서가 관여하다 보니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C 지분참여율 조정도 시급한 과제다. 통상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이사회 등을 통한 관리·감독권이 생기지만 실제 대다수 SPC는 19.9%를 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인 시나 도시공사 등이 그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상법상 회사

인 SPC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부분이 되레 시나 도시공사의 관리·감독권을 실종시켜 SPC의 방만한 운영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인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영통하게 세금이 새는 건 아닌지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C 설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한때 17개에 달하던 SPC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며 일부 통폐합을 통해 10개 이하로 줄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화나무집 프로젝트'와 '서운산업단지' 사업을 위해 다시 늘렸다. 또 인천경제청은 송도스트리트몰과 송도24호공원캠핑장 조성을 위

한 에스디프린터(주)와 인천토지개발(주)을 설립하는 등 '고무줄' 같은 관리로 스스로 SPC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승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안상수 시장 때 붓물 찼던 SPC가 송영길 시장 때 잠시 줄었다 다시 늘었다"며 "유정복 시장 때는 늘어난 SPC가 시장 측근 전유물로 전락했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내실을 기해 추진하고, 사업성이 적은 곳은 지분을 회수할 방침"이라며 "시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jih@kihoilbo.co.kr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부영 '테마파크 계획'대로라면 사람에 치일 지경

<속도>

1인당 활용면적 9㎡로 제시... 조경시설까지 포함하면 더 줄어
연 수용인원 절반으로 감축 필요... 시 "자문단 지적 반영돼야"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터(49만9천574㎡)에 추진할 송도 테마파크의 사업성이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영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맞춰 송도 테마파크가 추진된다면 '찜땀 테마파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일 부영에 따르면 ▶놀이시설(13만842㎡) ▶물놀이시설(6만㎡) ▶숙박시설(1만7천300㎡) ▶상업시설(4만1천㎡) ▶주차장(9만6천㎡) ▶공연시설(2만3천250㎡) 등으로 송도 테마파크를 구성 중이다. 부영

은 이 시설을 2018년 착공해 2020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연간 4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2023년부터 안정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영이 내놓은 사업계획을 두고 말이 많다. 사업성 분석에서 허점이 많아서다. 부영이 분석한 사업계획대로 송도 테마파크를 추진할 경우 이곳 이용객들은 앉아서 설 수도 없는 '한층막'을 경험할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부영이 제시한 관람객 1인당 9㎡의 활용면적과 연간 수용인원 400만 명으로 계산할 경우 놀

이시설은 13만여㎡의 터보다 4만여㎡가 더 많은 17만1천㎡가 필요하다. 여기에 부영이 적용한 조경시설을 포함하면 관람객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줄어든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부영이 제시한 연간 수용인원을 400만 명이 아닌 200만 명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놀이시설도 문제다.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소규모 놀이시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네 놀이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되면 테마파크의 주 고객인 재방문자의 입장률은 낮아 수익률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부영이 제시한 송도 테마파크는 관람객이 없는 '유령

시설'로 방치돼 향후 인천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시 관계자는 "마지막 사업계획 보고회를 하고 30일까지로 예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취소 여부는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며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자문단의 지적을 모두 수용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송도 테마파크 사업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의 한 관계자는 "공간 수용 능력은 롯데월드보다 덜 혼잡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고회에서 요구한 전문위원의 (공간 수용 능력)요구(안)와 사업성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경기도교육청
단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라

꿈의 무게와 크기가 달라도
재능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도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보다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아이들의 무한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안전소홀·규정 미비가 부른 人災에 지하 용접작업자 등 14명 사상자 내



LP가스·산소 공급 호스 충격 막는 철재 덮개 없어

1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가스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638-14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 내 4공구 공사 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5·26면>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서모(52)씨, 김모(50)씨, 정모(60)씨, 윤모(62)씨 등 근로자 4명이 숨졌으며 심모(51·중국인)씨 등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 4곳으로 나눠 옮겨졌다. 이들은 이날 사고현장에서 용단

작업(공기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하 15m 깊이의 작업현장에 들어갔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지상에는 지하 15m 깊이의 작업현장으로 LP가스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고무호스가 이어져 있었지만 이들 호스는 철재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채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

해당 공구 시행사 관계자는 “지하 작업현장에 용단작업을 마치면 매일 고무호스를 수거해 폐기한 뒤 다음 날 새로 호스를 설치해 사용했으며 별도의 호스덮개를 설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와 234조에는 사업주가 인화성 가스와 산소 등을 사용해 금속 용접·용단이나 가열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가스누출 및 방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규정은 정해져 있으나 어떻게 고무호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결국 인명사고가 재발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대·전승표·조한재·신기호 기자 pid@khihoilbo.co.kr



지난달 31일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열린 '제11기 인천대 남북아카데미 종강특강 및 수료식'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대 남북경협아카데미 제공>

인천대 남북경협 아카데미 11기 수료

개설 이후 500명 배출 인천 대표적 CEO강좌

'제11기 인천대학교 남북경협아카데미 종강 특강 및 수료식'이 지난달 31일 인천대 미래관에서 열렸다. 이 아카데미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전진기지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인천 시민의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개설됐다.

남북경협아카데미는 인천대와 기호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

대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등이 주관하고 있다. 아카데미가 개설된 이후 그동안 11기까지 총 500여 명의 원우를 배출한 인천을 대표하는 'CEO 강좌'다.

이날 특강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와 한국의 국가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견을 전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 경제 발전의 잠재적 요소를 지난 북한의 지하지원 활용과 개성공단 등 인접 협력 전략, 황해경제권 구축 등을 통해 남·북한 경제 공동 형성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고 강

조했다. 이 전 장관의 특강을 끝으로 '제11기 인천대 남북아카데미'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어진 11기 수료식에서는 이갑영 인천대 남북아카데미 원장과 최용관 인천대 남북아카데미 총원우 회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등이 참석해 김왕규 11기 회장을 비롯해 총 29명의 수료생에게 수료패를 전달했다. 한편, 인천대 남북경협 아카데미는 이달 중 12기를 모집해 오는 9월 28일부터 10주간 강의를 다시 펼친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시청각 장애인용 TV 저소득층에 무료보급

시·방통위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가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청각 장애인용 텔레비전(TV) 무료 보급 사업' 신청을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시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송소외계층인 시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전용 TV(자막·화면해설) 1천530여 대와 리모컨(원클릭 핫키)을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보급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28인치형 LED HD TV로, 장애인의 편리한 방송 시청을 위해 핫키가 포함된 전용 리모컨을 처음으로 제공한 다.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사용하는 모든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음성 안내의 속도와 음성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의 편의 기능이 탑재됐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으로는 자막방송을 9개 위치로 자유롭

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폰트·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신청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맞춤형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장애등급, 나이 등을 고려해 우선 보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 방송 수신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신청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들이 방송에 쉽게 접근하고, 더욱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게 돼 방송 접근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창업리그 전국예선 10개 팀 수상

인천대학교는 1일 송도 미추홀 캠퍼스에서 최성을 총장, 박선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등 내외빈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 시상식 및 학생 창업공간(DO:LAB)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모집을 거쳐 126개 팀이 참가,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이날 수상팀에게 지급된 총 상금은 2천만 원으로 각 부문 대상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 2개 팀에게는 각 300만 원, 우수상 2개 팀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4개 팀에게는 각 50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가장 높은 점수로 대상을

차지한 제조부문 대상(썬아이엔에이치 대표 김인규)에게는 도전 K-스타트업 2016년 진출권도 부여됐다.

최성을 총장은 "인천대는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창업리그와 창업동아리를 통해 육성된 창업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도 "대한민국 창업리그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동아리 및 학생 창업자 육성·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송도 8공구 M1 입찰 대박

주상복합 1필지 3413억 낙찰 예평가보다 811억원 더 많아 입찰기간 짧아 경쟁 높인듯

송도 8공구 M1블록 입찰에서 재맛이 터졌다.

인천시는 1일 진행된 송도 8공구 M1블록(연수구 송도동 311와 1필지)이 공개경쟁 입찰에서 예평가 2천602억 원보다 811억원이 많은 3천413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M1블록은 주상복합용지 M1-1(송도동 311번지 4만9천46.1㎡), M1-2(송도동 311-1번지, 3만259.8㎡)로 각각 나누어

매각을 진행했다. 입찰 결과 M1-1블록은 2천56억 원(예평가격 1천600억 원, 낙찰률 128%), M1-2블록은 1천357억 원(예평가격 1천2억 원, 낙찰률 135%)에 각각 낙찰됐다.

이번 M1블록 입찰에는 총 5개 업체가 응찰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디에스네트웍스(주)가 두 블록 모두 낙찰됐다.

시는 이번 M1블록 매각과 함께 지난 5월 A2블록 등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상반기에만 5천503억 원의 매각 실적을 올려 올해 공유재산 매각 세입 목표액인 4천7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특히 A2블록과 M1블록 매각에서 예평가 대비 약 1천억 원이 더 많은 매각 수입을 거둬 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올해 초 시행된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역대 매각에서 볼 수 없었던 높은 경쟁률과 낙찰률을 보였다"며 "매각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은 물론 앞선 A2블록과 비교했을 때 전략적으로 짧은 입찰기간을 준 것이 매각가격 상승의 시너지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hihoilbo.co.kr

A-R-T Icheon 이천시

웃으면 복이오요 웃고 또 웃어오

이천의 꿈과 희망, 35만 계획도시를 향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꿈이 있는 교육문화도시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 ·소통하는 섬김행정

‘인천국제청’ 신설로 세금민원 ‘더부살이’ 끝내자

인천권역 이의신청 건수 ‘불똥’... 현 국제청 별관선 처리 불가 수원까지 찾아가야해 불편... 시 “전담 담당관실 신설 건의”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국세청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도시이자 공항과 항만을 갖춘 도시로 세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무를 처리할 독립기관이 없어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권 인구와 사업자 수, 이의신청 건수는 지방국세청이 설치돼 있는 타 지역을 웃돌거나 비슷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과 부천·

김포·고양·파주 등을 포함한 인천권 인구는 551만6천 명으로 대전지방국세청(대전·충북·충남·세종) 관할 인구 532만9천 명, 광주지방국세청(광주·전북·전남) 525만3천 명, 대구지방국세청(대구·경북) 519만4천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자 수도 마찬가지다. 인천권의 법인사업자는 5만5천123개로 대구청 관할 법인사업자 4만5천801개보다 많고 대전청(5만5천352개)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 개인사업자는 인천권이 61만 명으

로 대전권 56만 명, 광주권 52만 명, 대구권 54만 명보다 많다. 특히 세수는 인천권이 9조1천억 원으로, 대구청이 징수하는 8조6천억 원보다 많고 광주청(11조5천억 원), 대전청(14조6천억 원)과 비교해도 규모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인천권을 관할하는 기관은 독립된 지방국세청이 아닌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이다. 더구나 중부청 인천권 관할 세무서는 9곳에 불과해 대전(15곳), 광주(14곳), 대구(13곳)와 비교가 된다. 또 중부청 인천별관에는 세무조사 담당하는 조사4국만 설치돼 인천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려면 수원에 있는 중부청까지 가야 하

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중부청 총 이의신청 건수(2천500건) 중 인천·부천 지역의 이의신청이 500여 건에 달했는데 이는 대전·광주·대구청 등의 약 400건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청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조직의 슬림화·효율화 추세에 있어 기관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청 신설 요구에 앞서 중부청에 인천권 전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부청 인천별관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수원까지 찾아가야 한다”며 “인천시민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인천권 전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설을 정 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승원 인천경찰청 사무처장은 “인구 300만 명 시대를 맞아 세금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넘어 인천청 설치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인천청을 원도심에 설치해 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에 불쏘를 뜨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노경수·박승희·신영은·제갈원영 시의회 의장후보 넷 표몰이 나서

24일 선출... 저마다 물밑접촉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일이 확정되면서 의장 후보들이 막판 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33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 1일 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의장 몫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은 2차 본회의 하루 전인 23일 인천시장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노경수(중구1) 현 의장과 박승희(서구4) 제1부의장, 신영은(남동2) 의원, 제갈원영(연수3)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노경수 의장은 유례없는 전후반기 의장직 독식에 대한 우려에도 안정적인 시의회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을 결집하고 있다. 박승희 부의장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소통하는 우직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4선으로 인천시의회 최다선인 신영은 의원은 다선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료 의원 다수에게 뚜렷한 지지를 얻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과 제물포고 동기인 제갈원영 의원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의원 24명 가운데 7표를 획득해 한 표 차이로 노 의장에 밀렸으나 2년 동안의 와신상담 끝에 많은 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등 감투를 썼던 인사들의 후퇴를 내걸고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유 시장 친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후보들의 장단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호불호(好不好)를 드러내지 않아 후보들의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한 후보는 “나를 열심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뚜렷하게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별로 없다”며 “후보들이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의원들을 모두 열거하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40명은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지난달 30일 최기산 주교의 선종을 듣고 인천 담동성당을 찾은 문상 행렬. <사진=천주교 인천교구 제공>

장례미사 생중계... 추모행렬 화답

故 최기산 인천교구장 추모 문상 인파 밤늦게까지 몰려 오늘 평화방송서 특집방송



이 특집방송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교구 설립 41년 만인 2002년 첫 교구 출신 교구장으로 작좌해 14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걸어온 최 주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천 담동성당을 찾아온 많은 추모객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사제서품 동기인 이찬우 신부(부천 상동 본당 주임)는 “친구·동료 사제이자 보필해 온 교구장 주교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 나라로 잘 가시게’라고 인사 드렸다”고 전했다. 비서로서 결을 지킨 김마리 페르페투아 수녀는 “늘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했던 주교님”이라고 회상했다. 김경일 기자 kik@khihoilbo.co.kr

청운대, 2016학년도 취업연계 중점대학 최종 선정

청운대학교는 1일 교육부 주관 ‘2016학년도 취업 연계 중점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39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 목표의 적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효율성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기대효과 및 파급력 등에 대한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전국 25개 대학이 뽑혔다.

청운대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지역의 우수기업을 유치,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학생들의 현장실무 경험을 가능하도록 지원해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청운대는 기업과 학생 맞춤형 매칭시스템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산업체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석형 산학협력단장은 “창의·실용 특성화교육에 맞도록 취·창

근로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고 대학이 제시한 취업 연계 브랜드화, 우수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학마다 3억 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김홍기의 기호만평. A list of phone numbers: 45977, 45978, 45979, 4000, 4001, 4002, 7005701, 5702, 5703, 5704, 5705, 5706, 6825, 6826, 6827, 6828, 6829, 6830, 67997, 7998, 7999, 8000. Includes a tiger logo and text: 기호시(생체)학소, 풍채...

Advertisement for (주)두영. Text: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공간의 가치를 빛나게하는 기술로 언제나 고객중심의 생활공간을 창조를 선도하는 기업.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술로 감각이 돋보이는 전문가들의 기술이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두영. Image of a living room with a sofa and a chair.

도의회, 전국 첫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추진

“지방자치 말살 개편안 반대”

산업지원센터 설치·기술 연구개발·육성자금 등 지원키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반려동물 육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도의회는 1일 조광주(더·성남3) 의원이 낸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7일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산업은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경기도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추진 방향과 목표,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 지원, 기술 개발·연구사업 수립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업·단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신

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유효기간 3년의 우수 반려동물업체·우수반려동물제품을 지정하고, 반려동물 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은 “작년 말 기준 국내 등록 반려동물은 97만 마리를 넘

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2020년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4~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채인석 화성시장 정부청사 앞 재정제도 개혁 반대 1인 시위

채인석 화성시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채 시장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자체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가속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232곳, 무려 95%에 이르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고 나면 나머지 5%의 지자체조차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한 지자체 간 수평적 예산 이동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잠정 폐쇄 ‘송탄버스터미널 정상화’ 촉구

김윤태 평택시의원 “우범지역화 등 우려” 시 집행부에 부지 매입 등 방안 강구 주문

평택시 자산동 송탄시외버스터미널(이하 송탄터미널) 내 일부 부지에 대해 도지사가 대폭적인 임대료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최근 시가 잠정 폐쇄하고 인근에 임시 버스베이(버스정차대)를 운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행정편의적인 졸속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18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윤태 의원은 7분 발언을 통해 “송탄터미널 문제가 1년여 전부터 불거졌는데도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폐쇄 조치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부지 매입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송탄터미널을 1993년 현재 위치로 이전한 이후 북부 지역으로는 서울·인천·강원도를, 중·남부지역으로는 대전·군산·광주 등 전국 19개 노선에 하루 210회를 운행하며 1천100여 명이 이용하는 지역의 명실상부한 거점 터미널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송탄터미널은 인건급항을 연결하는 노선버스가 있어 출퇴근하는 시민은 물론, 시를 방문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터미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1년여 동안 도지사가 부지 임대료를 200만 원에

서 8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버키케이드를 치고 버스 진출입을 막아 버스의 정상적 운영을 막아 왔으나 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터미널 맞은편에 버스베이를 활용한 간이정류장을 설치하는 졸속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터미널이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심의 흉물로 변해 우범지역화되고, 기존 도심의 슬럼화가 가속화됨은 물론 주변 상권 쇠퇴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는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지와 경매 진행 중에 있는 부지를 평택도시공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원이 1일 열린 제18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에서 우선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터미널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hihoilbo.co.kr

지관급 성남시의회 ‘의장 출마’ 선언

성남시의회 4선 지관급(더·상대원1·2·3동·사진)문화복지위원장이 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에서 “중앙정부의 성남시 지방재정 파탄을 이르게 하는 지방재정 개악이 시를 심각히 훼손을 받는 상황”이라며 “의장이 되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공헌,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총체적 위기상황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권중(전반기 의장)의원은 상생과 협치라는 의회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의회를 이끌어 오는 등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기여했다”며 “이것을 발판 삼아 향후 2년간 동료 의원들과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능숙한 고교 역할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의장으로서 10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권능 있는 의회상 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관급·박문석·김유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회동에서 제한경쟁과 의장 후보 선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정정당당히 경쟁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보들은 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있어 선수(選數)에 임각해야 한다는 점을 양당에 건의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지역 개발 막는 수도권정비법 철폐를”

수원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 ‘백종헌·민한기’

김용재 이천시의원 발언

“수도권정비법과 한강수계의 해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천시의회 김용재(55·새·다선 거구·사진)의원은 1일 개최된 ‘제1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고,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는 그동안 특정수질오염물질 30가지를 정해 놓고 이전시에 한 가지라도 검출되면 공장을 문을 닫으라고 하면서 이천시와 경제지역으로 금강수계에 있는 충북 음성군이 축산분뇨 처리장과 음식물폐기장의 오염원

을 남한강 쪽으로 흘러 버린다는 계획에 대해선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러한작태는 팔당수계 8개 시·군과 2천500만 수도권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정비법, 자연보존지역, 농림보존지역, 수질보존지역 등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천시는 각종 개발을 제한하면서 금강수계의 오염물질을 한강수계로 버리는 것을 눈감아주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신승백 기자 syb@khihoilbo.co.kr

2년간 각 정당 안살림 담당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은 백종헌 의원을, 새누리당은 민한기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시의회는 34명 의원으로 더민주 17명, 새누리당 16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된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교섭단체로 활동 중이다.

시의회 더민주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이같이 선출했다.

더민주 대표로 선출된 백종헌



백종헌 의원
민한기 의원

의원은 영통1·2동과 태장동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10대 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상임위 활동 중에 있으며, ‘공공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특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민한기의원은 제1·2·3동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제9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 중에 있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관광상품 개발 연구회’를 결성해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1일부터 향후 2년간 각 정당의 안살림을 비롯해 의회 내 협상 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성남=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규모 인사 단행

부천시는 다음 달 4일 시행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1천257명의 대규모 인사 발령사항을 발표했다.

<명단 25면>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4급 기구 신설 및 공로연수 파견과 명예퇴직에 따른 승진 92명, 퇴직 및 공로연수 35명, 전보 및 발탁 1천130명이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사-구 등) 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기능의 중복을 개선해 행정의 효율

성을 높였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4급뿐 아니라 일반 실무직원도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부서에서 장기 근속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임용했으며, 4급·5급 승진 임용은 법정 승진배수자 범위 내에서 근무경력과 업무 추진 성과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여성 육으로 5명을 승진 임용해 올 상반기 총 7명의 여성 공무원을 5급 관리직으로 승진 임용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6-05-24호

문학구역 체비지 매각 공고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제48조와 원지시행세칙 제15조,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취급세칙 제6조, 제7조에 의거 문학도시개발사업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 매각대상토지
 - 첨부 1(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예정가격)와 같음
- 매각방법
 - 일반경쟁 입찰(필자별 매각)
 - * 매각방법에 관한 일반사항은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및 체비지매각 및 청산금 취급세칙을 준용합니다.
- 매각일정

| 구분 | 입찰 공고 | 입찰등록, 입찰일시 | 입찰 등록일시 | 낙찰자 발표 | 계약체결 기간 | 계약체결 장소 |
|----|-------------|------------------------------------|--------------------|-----------------|----------------------|----------------------------|
| 1차 | 2016년 5월24일 | 문학동 141-2 (수)14:00~ 6.3(금)~ 6.7(화) | 2016.6.8. 16:00시까지 | 2016.6.8. 15:00 | 2016.6.9.~ 2016.6.10 | 문학도시 개발사업 조합사무실 (문학동336-9) |
| 2차 | | (문학동336-9) | | | | |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자별 입찰금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인천저축은행158-01-13-2220538(예금주 : (주)코람코자산신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시 입찰보증금 입찰서와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체비지 위치 및 예정금액은 문학도시개발조합 사이트(http://cafe.daum.net/moonhak1867), 또는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서류 구비서류
 - 개인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 : 대표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 증명서
 - 입찰서(당사 소정 양식) 1부
 - * 대리인이 입찰 참가 시 인감(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상 최고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 1차 공개경쟁입찰 유찰시, 최초(예정가격) 입찰가격으로 2차 입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후요 사항
 - 입찰보증금 미달 시,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 시, 주요사항 기재 착오 시,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 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 됩니다.

2016년 5월 24일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장

..... 유 의 사 항
1. 입찰보증금은 인천저축은행 158-01-13-2220538(예금주:(주)코람코자산신탁)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보증금 납부시에는 무통장입금표 상의 입찰자란에 “지번, 입찰자명”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의 수납은 상기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납부된 것만을 인정하며, 이외의 납부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상기 부동산을 입찰 및 매매함에 있어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과 “(주)코람코자산신탁”이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본 입찰 및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코람코자산신탁”은 매수자의 매매대금의 수납 등 자금관리업무 및 잔금납입에 따른 등기상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협조할 업무만을 수행하며, 매도자로서의 제반 책임과 의무(매매부동산 상의 지장물, 건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후, 법률상 제한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포함한 모든 책임 및 의무를 의미한다)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입찰 및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환별,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제한사항으로 소유권 이전 연기 또는 불기에 대한 책임은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에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입찰(매매)부동산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방문을 통하여 입찰(매매)부동산의 현상 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고 제2016-648호

하남선(상일~검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5공구) 사업계획변경승인 공람공고

하남선(상일~검단선) 복선전철 건설(5공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경기도지사

- 사업의 개요
 - 가.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 사업명 | 위 치 | 시 설 내 용 | 비고 |
|--------------------------|--|-----------------------------------|----|
| 하남선(상일~검단선) 복선전철 건설(5공구) | - 기점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종점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 - 하남선 본선 1,445.65m - 정거장 1개소 등 | |

 - 나. 정거장 위치
 -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 다. 도시철도 노선의 주요 경과지
 -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창우동 일원
 - 라. 사업의 필요성
 - ▷ 하남시의 도시성상 발전계획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 최적의 대중교통시설을 확보하고, 수도권 남동부 개발로 인한 서울~하남간 광역교통수요에 대응
 - 마. 사업의 효과
 - ▷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
- 신청인(사업시행자)
 - ▷ 성명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매산로 3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 사업기간
 - ▷ 착수일 : 2016. 1. 8
 - ▷ 준공일 : 2020. 3. 16
- 공람도서(계획명면도, 종단면도, 토지조서, 편입부지 도면)
 - ▷ 개제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 ▷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 하남시 미사대로710(하남시환경기초시설내) 하남시 도시개발과(☎ 031-790-5358)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 철도건설과(☎ 031-8008-3576)

더민주, 서민 주거정책 발굴 본격시동

전월세·도시재생 등 해법 모색 TF 수도권 지역의원 대거 포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민주거 TF(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발굴 작업을 갖고, 1차 회의를 통해 전월세 문제 등 서민주거 문제 해결 방안과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TF단장은 김상희(부천 소사)의원이, 간사는 유동수(인천 계양

갑)의원이 맡기로 했다. 주거공급 소위 위원장은 윤관석(인천 남동)의원, 주거안정 소위 위원장은 윤호중(구리)의원, 주거복지 소위는 이인주(광명)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TF는 ▶주거공급 ▶주거안정 ▶주거복지 3개 분야로 소위원회 구성, 세부 사항들을 집중 점검

하기로 결정했다. 주거공급 소위에서는 공공임대 주택 확충 및 청년 주거 공급, 도정 법 개정 및 도시재생문제 등도 현실에 맞게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안정 소위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 문제에 대한 전반을 검토한다. 주거복지 소위는 관리비 문제,

원도심 내 낡은 아파트 개선 지원 및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서민주거 TF는 다음 주 중 주거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주거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서울과 인천 등에서 실시 중인 서민주거정책 성공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강봉석 기자 kbs@kohoibo.co.kr



해병대에 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왼쪽) 비상대책위 대표가 1일 오전 김포 해병제2사단 본부에서 현병복고를 받기 앞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전진주 사단장. /연합뉴스

당정, 미세먼지 예보 강화 첫 테이블

20대 첫 회의 원내대표가 주재 생활정치 이슈 대책 마련 나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미세먼지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원내대표 주재로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미세먼지 관련 첫 당정협의를 가진다”며 “생활정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보능력 향상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를 전진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며,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성환 이명수 이현재 의원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산업부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당정협의를 일반적으로 정책위의장이 주재하지만, 미세먼지가 생활밀착형 이슈인데다 20대 국회 들어 첫 당정인 만큼 정 원내대표가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ohoibo.co.kr

인천시·국회의원, 오늘 국비확보 등 현안 소통

인천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는 2일 남동구 간석동 소재 한 호텔에서 2017년도 국비확보와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홍일표·이학재·정유섭·민경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송영길·박남춘·윤관석·신동근·유동수·박찬대 의원, 무소속 안상수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며, 시에서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행정

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현안사업 국장 등 13명이 함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자 상견례에 이은 것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국비확보와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2017년 핵심 국비사업인 인천발 KTX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공항조도시생산업, 백령-인천항로 재개를 위한 지원 등 25개 사업의 예산 반영과 수

도관광여객행철도(GTX) 건설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량비 국비 지원 등 13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과 화합으로 인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에게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협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ohoibo.co.kr

남양주 공사장 붕괴 사고 추가 매몰 등 수습에 만전

황 총리, 재발방지 주문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밀 점검과 구조활동을 강화하고 사망자 지원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사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고 현장과 주변 교통상황 등을 관리해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추가 붕괴에 대비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면서 이같이 지시

했다. 이어, “이번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차체에 지하철 등을 포함한 공사장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건설업계도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부터 안전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민간부문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ohoibo.co.kr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가해야” 국민연방 박지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허가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일하는 국회 못 지키면 院구성 때까지 세비 안받을 것”

국민연방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일 “자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의 정상적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고 강조한 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kbs@kohoibo.co.kr

與 “국회의장직 우리 것” 野 “원구성 협상 어렵네”

우상호 원내 “정상개원 협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여야의 원구성 협상과 관련, “새누리당이 어제부터 국회의장직을 가져가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한다”면서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협상 테이블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말할 수 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협상이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7일에 정상적으로 국회 개원하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새누리당은 한 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명실상부한 여당이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또 새 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문제 삼는데, 여당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야당간 협상을 하는 것은 결코 협치를 깨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ohoibo.co.kr

강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지구로 선정

안상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강화군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화군 북부지역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강물 끌어오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 관로를 통해 한강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항구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 48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4·29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강화군의 가뭄



해결을 위해 ‘한강물 끌어오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안 의원은 “이 사업이 확정돼 앞으로 강화 북부지역은 물론 삼산면을 포함한 강화 전역에 한강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강화 농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화=김현호 기자 kimhh2@kohoibo.co.kr

이원욱 “짜통 근절시킬 법안 손질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 국회의원이 짜통 상품을 근절해 국내 의류업체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서울시와 동대문패션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에 이뤄진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공동협력 업무협약식’과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에 참석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폐업이 속출하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제조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명 짜통이라 불리는 불법공산품이 유통되는 것은 제조업자의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며 “국내 공산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짜통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관련 법의 손질이 필요하기도 살필 것을 약속했다.

조흥복 기자 hbj@kohoibo.co.kr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정책검증

더민주, 선관위 구성완료 15일 후보공약·비전 점검 새누리 대표의원·부의장 20일 추대로 확정 전망

경기도의회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연정 2기의 핵심 축이 될 후반기 의장·대표단 선출에 앞서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개적 정책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1일 총 7명의 당내 선관위원을 모두 인선하고 구성을 마무리했다. 당초 선관위원 접수에는 12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나 이날 오전 자체 논의를 통해 선관위에 들어갈 의원을 선정했다.

최재백(시흥3)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김영환(고양7)의원, 간사는 고윤성(안산4)의원, 대변인은 김보라(비례)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선관위원에는 서영석(부천7)·박옥분(비례)·최종환(파주1)의원이 포함됐다.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포함 총

5회로 제한하고 항응 제공 금지 등을 규정, 위반 시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더민주의 후보자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의장·부의장·대표의원 후보자 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후보 공약과 각 직책에 대한 역할 비전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후보자별 본회의·의원총회 출석률, 대표발의 조례, 의회 경력적 역할 등 지난 의정활동 실적을 공개하고, 대표 공약 등을 비롯한 후반기 의회운영계획서도 공개, 유권자인 당내 의원들의 판단을 돕기로 했다. 선거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

다수당 몫인 의장에는 정기열(안양4)·임재호(안양3)의원 과 현 당대표인 김현삼(안산7)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부의장에는 김진경(시흥2)·김주성(수원2)·류재구(부천5)·조광명(화성4)·조광주(성남3)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의원에는 박승원(광명3)·서진웅(부천4)·이필구(부천8)·오완석(수원9)·정대운(광명

2)의원이 당내 지지세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도의회 새누리당도 이날 재선·3선 의원들 간 논의를 통해 당내 후반기 대표의원들과 새누리당 몫 부의장 선출을 관리할 선관위를 잠정 구성했다.

김광철(연천)의원이 위원장에 내정됐으며, 윤영창(포천2)·천동현(안성1)·고오환(고양6)·김승남(양평1)·곽미숙(고양4)·이영희(성남6)의원이 선관위원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종 구성은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새누리당도 더민주와 마찬가지로 20일께 부의장과 대표의원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선거를 통한 선출 대신 추대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누리당 후반기 대표의원에는 현 대표인 윤태길(하남1) 의원과 최호(평택1)·남경순(수원1)의원이 도전하고 있으며, 부의장은 3선의 염동식(평택3)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남궁진 기자 why0524@kohoibo.co.kr

지방자치발전위, 오늘 특별지자체 도입방안 모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전문가, 지방 4대 협의회,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한된 사무

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전기, 소방 등에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제도로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만 운용되고 있을 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만 있고 설치절

차 및 운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방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ohoibo.co.kr

149294-중-026999

진료부: 암, 뇌, 심장, 관절·척추, 장기이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인천 서구청 인근 ☎ 대표전화 1600-8291

내년~2018년 70만 가구 쏟아진다 아파트 '미분양 쓰나미' 몰려올라

1기 신도시 이후 최다 물량 양적 팽창 부작용 대비 필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및 전국 아파트의 2017~2018년 입주 물량이 1990년대 이후 최고 정점을 찍으며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70만여 가구로, 2년 단기 입주물량으로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됐던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조

성된 1994년~1995년과 1997년~1998년에 각각 82만~83만 가구가 쏟아진 사례가 있지만 주택 보급률이 70~80% 수준이던 20년 전과 현재(2014년 기준 118%·통계청 자료)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최근에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부분의 거주 만족도 해소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2년간 70만 가구가 입주할 만큼 양적 팽창이 가속화될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는 예상되

지만 초과공급에 따른 '소화불량'도 우려된다.

과거 2002년~2008년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밀어내기 분양이 급증하며 연 평균 입주 물량이 약 33만 가구가 쏟아져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준공(입주) 후 미분양이 2~3배 가량 폭증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부작용 사례는 수차례 반복됐고, 입주 시점에 분양가격 이하로 떨어진 '고분양가' 단지로 인해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까지 나서서 2017~2018년 발생할 미분양물량 급증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한 바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2017~2018년 70만 가구 입주까지는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불안감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라며 "미래 특정 시점(2017~2018년)과 특정 지역(경기, 일부 부지부) 공급 과잉 또는 수급불균형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과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지난달 31일 화성시소공인협의회의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화성시소공인협 창립총회... 초대 회장에 김영홍 대표

화성시소공인협의회의(이하 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려 초대 회장에 건진산업 김영홍 대표가 선출됐다.

이 자리에는 화성상의 최주은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국회의원, 재인석 화성시장,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 정요안 화

성소방서장, 김지암 화성세무서장, 소공인협회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홍 초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화성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협의회 회원들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성상의 최주은 회장은 축사에서 "화성지역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화성시소공인협의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앞으로도 화성시, 경기 중기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화성지역의 소공인들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상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내수기업 수출 거래처 발굴에 달려

중기중앙회 304개사 설문 경쟁력 품목 육성 등 필요

수출을 중단했거나 직수출 경험이 전무한 내수기업은 해외 바이어 정보 및 중소기업 경쟁 우위 품목 집중육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내수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내수기업의 수출해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수기업은 공통적으로 내수기업에 수출기업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해외거래처 발굴 지도'(29.3%),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 우위 품목 집중 육성'(16.5%),

'현지기업과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지원'(12.5%), '수출단계별 노하우 1:1 맞춤형 지도'(10.5%) 순으로 역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출 중단 기업의 '중단전 수출 활동 기간'은 '6개월 미만'(30.4%), '1년 이상~2년 미만'(21.6%), '6개월이상~1년미만'(15.7%)으로 절반 이상(67.7%)이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수출을 시도하다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직수출 경험이 전무한' 내수기업은 '직수출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로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2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소액 소량 품목으로 수출 추진이 번거로워서'(14.8%), '수출 보다는 내수를 통한 수익률이 나아서'(12.9%) 순으로 응답했다.

양진영 기자 camp@khihoilbo.co.kr



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창조실에서 열린 '이달의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시상식에서 OP(OBEY&PRAISE) 김성재 대표(왼쪽부터), ㈜대호레더 이승석 대표,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오리엔탈드림 이미애 대표, ㈜큐아이티 배정환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큐아이티 배정환 대표 등 4명 '이달의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1일 중기센터 4층 창조실에서 '이달의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상은 중기센터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중기센터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기업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수여한다.

6월의 자랑스러운 기업인으로는 ㈜큐아이티 배정환 대표, ㈜오리엔탈드림 이미애 대표, OP(OBEY&PRAISE) 김성재 대표, ㈜대호레더 이승석 대표가 수상했다. 전력전자기술 기반의 제품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큐아이티는 지

난 2013년 4월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뒤 특허 7종을 등록하고 연구소와 공장을 세우는 등 성장의 기반을 구축, 직원 3명에서 창업을 시작해 현재 4명을 추가 고용한 상태다.

발달제품 개발 및 제조업체인 ㈜오리엔탈드림은 'G-FAIR KOREA'에 2011년부터 5년 연속 참가, 10여 개국 해외 바이어들과 지속적으로 수출 협상 및 거래를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 '온돌'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상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기획실(☎031-259-6026)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섭 기자 ksp@khihoilbo.co.kr

안양시, 세계적 계측기기 업체 유치

석수스마트타운에 '호리바코리아' 분사·공장 이전 년 매출 350억대... 아우디 등과 거래 업계 선두주자

계측기기 분야 세계 선두 주자인 호리바코리아(이하 호리바)가 안양에 동지틀 든다.

안양시는 계측기기 생산 전문 다국적기업인 호리바코리아가 석수스마트타운에 분사와 공장을 이전한다고 1일 밝혔다.

일본 투자기업 호리바코리아는 자동차, 이과학, 환경·프로세스, 의료용 기기, 반도체 등의 분야에

서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계측기기 제조에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26개국에 계측 및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선두 주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적 기업인 벤츠, BMW, 아우디, 현대자동차,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으며, 종업원은 120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350억

원이다.

호리바코리아는 부천의 본점과 서울지점, 수원사무소, 가산지점 등이 모두 내년 하반기 석수스마트타운 이전을 결정한 상태다.

안양 이전 확정에는 시의 유치 노력과 당초 석수스마트타운 입주 예정이었던 기업이 호리바 측에 매각을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중기육성자금 지원과 관내 청년 우선 고용, 소외물품 관내 업체 제품 이용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양=이정택 기자 jitee6151@khihoilbo.co.kr

"티볼리 에어 고맙다"... 쌍용차 5월 내수 49%·수출 71% 경증

쌍용자동차는 지난 5월 내수 9천191대, 수출 4천91대를 포함해 총 1만3천282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티볼리 에어가 3월 출시 이후 티볼리와 함께 인기를 끌며 판매 확대를 주도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하며 3개월 연속 1만3천 대 이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티볼리 브랜드는 티볼리 에어의 가세로 7천545대의 글로벌 판매실적을 기록해 누계 판매가 전년 대비 내수는 49.4%, 수출은 71.8%나 대폭 증가하면서 판매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hihoilbo.co.kr

분당차병원 국제 의료기관 공인

임상연구 등 우수 평가 JCI 인증... 현판식 가져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지난달 31일 차광렬 총괄회장, 김동익 병원장 등 임직원들과 JCI(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국제인증

의료기관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지난달 성남지역 최초로 JCI 인증을 획득, 수준 높은 진료 시스템과 연구 인프라가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받았다.

수천 가지의 평가에서 분당차병

원은 환자교육, 진료, 임상연구 부분은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차광렬 총괄회장은 "이번 JCI 인증은 분당차병원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의료시스템을 갖췄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향후 차병원그룹의 글로벌 의료그룹으로서의 이미지 강화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c@khihoilbo.co.kr

이천시 공고 제2016-971호

도시관리계획(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이 천 시 장

1. 개요
가. 사 업 명 : 북하천 제2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1-8번지 일원 (면적 : 13,060㎡)
다. 공명 결정(변경)조사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사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 |
| 변경 | ① | 북하천 제2수변공원 | 수변공원 | 안흥동 1-8 일원 | 11,954 | 중)1,106 | 13,060 | 이천시고시 제2013-173 (2013.11.11) |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사

| 구 분 | 부지면적(㎡) | | 사실면적(㎡) | | 건 축 물 | | | | 공작물(기)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동수(동) | | 비대면적(㎡) | | 연면적(㎡) | | | |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 공원 시설 | 계 | 11,954.0 | 13,060.0 | 4,284.0 | 4,742.0 | 1 | 2 | 33.0 | 100.0 | 33.0 | 100.0 | 57 | 56 |
| | 소 계 | 4,284.0 | 4,742.0 | 4,284.0 | 4,742.0 | - | - | - | - | - | - | - | - |
| | 기반시설 | 2,456.0 | 2,891.0 | 2,456.0 | 2,891.0 | - | - | - | - | - | - | - | - |
| | 조경시설 | - | 70.0 | - | 70.0 | - | - | - | - | - | - | - | - |
| | 편익시설 | 74.0 | 128.0 | 74.0 | 128.0 | 1 | 2 | 33.0 | 60.0 | 33.0 | 60.0 | 2 | 2 |
| | 운동시설 | 739.0 | 1,185.0 | 739.0 | 1,185.0 | - | - | - | - | - | - | 5 | 7 |
| | 유희시설 | - | 180.0 | - | 180.0 | - | - | - | - | - | - | - | 10 |
| | 휴양시설 | 1,015.0 | 248.0 | 1,015.0 | 248.0 | - | - | - | - | - | - | 50 | 37 |
| | 관리시설 | - | 40.0 | - | 40.0 | - | 1 | - | 40.0 | - | 40.0 | - | - |
| | 녹 지 및 기타 | 7,670.0 | 8,318 | - | - | - | - | - | - | - | - | - | - |

2.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
3. 공람기간 : 2016. 6. 2일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시청 개발사업과, 증포동사무소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이천시청 개발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개발사업과(☎031-644-7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떡집

각종 떡 도매 납품 전문

케신 폐잔 회생 개백
의행백 치감일업일
떡떡떡떡떡떡떡떡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2동 399-8
TEL.032)433-0763

송도 8공구 M1 블록 3413억 매입

<M1-1·M1-2>

‘디에스네트웍스’ 통 큰 베팅 눈길

서울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3.3㎡당 최고 1480만 원 낙찰 예정 가격보다 800억 원 높아 인천시에 재정난 해소 ‘단비’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인 ‘디에스네트웍스’의 행보가 관심거리다.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시장에 내놓은 수천억 원대의 공동주택용지를 과감한 ‘베팅’으로 매입하고 있어서다.

시는 최근 매각에 나선 송도 8공구 내 주상복합용지 M1블록(연수구 송도동 311번지 등 2필지의 공) 경쟁입찰 결과, 예정가 2천602

억 원보다 810억5천800만 원이 많은 3천413억 원에 낙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된 업체는 다름 아닌 디에스네트웍스이다. 이 회사는 총 5개 응찰 업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두 블록을 모두 차지했다. M1-1(4만9천46.1㎡), M1-2(3만259.8㎡)로 나눠 입찰한 결과, M1-1블록은 2천56억 원(예정가액 1천600억 원·낙찰률 128%), M1-2블록은 1천357억 원(예정가액 1천2억 원·낙찰률 135%)에 각각 낙찰됐다. 디에스네트웍스는 이 땅을 3.3㎡당 1천380여만~1천480여만 원에 각각 매입한 셈이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송도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땅값이 3.3

㎡당 1천300만 원이 넘는 데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시 입찰에선 ‘대박’을 터뜨렸다고 볼 수 있다. 예정가격보다 800억 원이 넘는 돈이 더 들어와서다.

디에스네트웍스는 앞서 2015년 10월 말 인천경제청이 내놓은 송도 8공구 A4블록(10만5천21.9㎡)도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 도지를 매입했다. 당시 매각예정가 2천552억321만 원보다 629억 원이 많은 3천181억 원을 써 이목을 받기도 했다. 디에스네트웍스는 오는 7월 이곳에서 2천100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이다.

이 회사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해결에도 한몫했다. 2013년 3월 28일이다. 디에스네트웍스는 이

때 미래에셋증권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어 송도 5공구 공동주택용지 Rc2블록(7만5천338.2㎡)을 1천859억 원에 매입해 1천406가구 규모의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를 분양, 올 하반기 입주할 앞두고 있다.

1982년 창립한 디에스네트웍스는 지난 30년간 부동산 개발과 관련 마케팅 분야를 개척해 온 종합부동산개발회사로 알려져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디에스네트웍스의 토지 매입이 ‘주목거리’로 등장했다”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 회사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동 기자 airin@khihoilbo.co.kr



린넨으로 시원한 여름 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린넨 소재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롯데마트 제공>

잘 나가는 한국지엠

5월 한 달간 판매 대수 국내의 총 5만1907대 내수시장 전년비 40% ↑

한국지엠은 5월 한 달간 국내에서 총 5만1천907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내수판매는 1만7천17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02년 회사 출범 이래 5월 실적으로는 최대치다. 또한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 실적이자다.

한국지엠의 내수판매는 3월 이후 경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형 스파크와 4월 하순 공식 판매에 들어간 신형 말리부가 이끌었다.

스파크는 지난달 국내에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14.4%가 늘어난 8천543대가 팔렸다.

4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 중형 세단 말리부는 지난달 국내에서 전년 동월 대비 169.1% 증가한 3천340대가 판매됐다. 2011년 10월 국내 시장에 말리부가 출시된 이후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

한국지엠의 완성차 수출(선적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2% 감소한 3만4천728대를 기록했다.

안재근 기자 ajk@khihoilbo.co.kr

십정2구역 감정평가업체 선정

진통 끝 중앙감정평가법인으로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업체가 진통 끝에 중앙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됐다.

1일 십정2구역 주민대표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앙감정평가법인은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아 2위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을 3점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주민들이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있어 주민대표위원뿐 아니라 일반 주

민들도 선정위원회에 참여시켜 줄 것과 선정일을 늦춰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결국 주민대표위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민 20명을 선정위원으로 뽑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선정위원의 배점이 30점에 불과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70점 범위 내에서 주민대표위원

이 평가 및 배점을 하고, 나머지 30점을 일반 주민에게 배정해 참여 취지가 무색했다”고 지적했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바이오·물류·관광산업 육성해야

인천지역 산업구조... 세미나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 토론 '3대 산업' 선택과 집중 필수

인천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8대 전략산업’이 아닌 ‘3대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인천시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린 ‘인천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경수 한 국은행 인천본부 과장은 “수도권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인천은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높은 성장세를 보인 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성장 정체에 접어들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지역 내 총생산성장률이 1.9%로 전국 평균(3.1%)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은 선진국의 터진 경기회복과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으로 인한 경쟁압



력을 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중견기업의 역외 이전과 지역 주력산업의 연구개발, 혁신활동 미흡 등이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장 과장은 ▶지역 내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식품·환경·에너지 분야와의 융합 확대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공학·항공을 활용한 물류산업의 전문화·고급화·대형화 추진 ▶섬 관광을 포함해 의료·뷰티산업과 연계된 종합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산업 육성 등 3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인천 경제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계·전기전자·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성장산업의 산업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신성장산업은 미래 인천의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장경수 과장 외에도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오준병 인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송양훈 인천대 교수, 이명수 시 경제정책과 팀장, 주현 산업연구원 선임,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참석해 종합 토론을 벌였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펼쳐지는 마지막 슈퍼시리즈-

2016 ITTF 월드투어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 슈퍼시리즈

2016.6.22.(수) ▶ 26(일) | 인천 남동체육관

무·료·셔·틀·버·스·운·영
기호일보 홈페이지(www.kihoilbo.co.kr) 참조

주최 국제탁구연맹
주관 KTTA 대한탁구협회 인천시탁구협회 기호일보 문의 기호일보사업국 032)761-0007
후원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Nittaku 에른스가구 안림병원 Kyungshin

인천항만공 ‘항만 인프라 개발’ 합동 워크숍

인천과 부산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는 1일 항만 인프라 개발 및 조성 사업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1·2층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연계 개발 방안’을 주제로 합동 건설기술 교류협력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인천항 아암물류2

단지과 부산항 용동지구·남컨테이너 배후단지, 광양항 동측·서측 배후단지 등 각 항에 지정된 2층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진행 상황과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각 공사 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2013년 4개 항만공사가 체결한 ‘건설기술 교류협력 실무협약’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배준근 기자 jongjb@khihoilbo.co.kr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일제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이번 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신규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천200만 원을 만기 시 받는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동네방네

광주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국가 공인 인증기관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획득했다.

시 홈페이지는 지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문가 심사과 사용자 심사로 나눠 진행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심사에서 기술적 검증에 중점을 둔 전문가 심사를 99% 이상 준수하고,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실제 사용 편의성을 검증하는 사용자 심사에서 과업을 100% 달성하는 등 장애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평가돼 최종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포천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포천시는 포천지역 중소기업체의 수출 증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016년 대양주(호주 멜버른,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장개척단'에 파견할 업체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해 5개 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6년 대양주 시장개척단'은 오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서 직접 파견되며, 상담품목은 자동차 관련 부품, 철강제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및 기타 소비재 상품 등이다.

문의: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SOS팀 ☎031-538-2289,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팀 ☎031-259-6143

포천=박득훈 기자 pdj3015@khihoilbo.co.kr

안산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장기 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웃과 나눔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실천으로 뇌사 기증과 사후 기증 그리고 생존 시 기증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 기증 희망등록을 원하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hoilbo.co.kr

하남 검단산 등산로 이정표 정비

하남시는 환경친화적인 등산로 관리와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검단산 등산로에 설치돼 있는 안내판과 이정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검단산 등산로 이정표는 지난 2008년 5개 주요 등산로 27곳에 설치했고, 2011년은 하남소방서에서 산악안내표지판 13곳을 설치했으나 거리 표시의 상이한 곳이 발견됨에 따라 등산객의 불편과 혼선을 예방하고자 67곳 이정표와 2곳의 종합안내판 교체 정비에 들어가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남=이종재 기자 hj@khihoilbo.co.kr

양주시 경관계획 중간보고 가져

양주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관 위원회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적인 경관 특성을 반영하고, 문화·역사적 가치를 향유할 도시를 계획·연출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인 '양주시 경관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문가 및 실무부서의 많은 관심 아래 체계적인 경관정책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일관성 있는 도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성호 시장은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경관 개선을 위한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hun@khihoilbo.co.kr

도,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민원행정 프로세스 '대수술'

설립목적 판단 모호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불편 초래 실국별 전담직원 책임 강화... 홈페이지 상세 매뉴얼 안내

그동안 민원인의 대표적 불만 사유였던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관련 '부서 간 민원 핑퐁(민원 떠넘기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갈을 빼들었다.

도는 부서 간 민원 핑퐁을 없애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 관련

민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비영리법인과 단체 설립을 원하는 도민들은 법인과 단체의 유형과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 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관련돼 설립목적

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등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경기 남부지역은 자치행정과, 북부지역은 행정관리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괄부서는 120 콜센터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과 업무를 처리할

실·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과 단위로 처리되던 업무처리 권한을 한 단계 격상해 실·국별로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고, 전담직원의 업무 능력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담직원에게 접수된 민원을 반송이나 이첩해야 할 경우 부지사 결재를 선행토록 하고, 민

원 떠넘기기 사례를 분기별로 부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업무 책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민이 보다 쉽게 비영리법인과 단체 민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매뉴얼을 신설해 업무처리 절차와 매뉴얼, 실·국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은 허가제이며, 비영리단체는 등록제로 운

영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도내 비영리법인은 1천617개, 비영리단체는 1천954개가 등록됐다.

이제을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개선안은 전담관제·학술용역 개편에 이은 남경필호의 3번째 행정 혁신안"이라며 "향후엔 간접 줄이기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눔 기자 hero43k@khihoilbo.co.kr

평택 통복시장 '청년몰' 세워 부활 꿈꾼다

시, 국비 7억5000만 원 확보 유희공간에 점포 입점 추진

평택시는 지난달 장기간 슬림화된 통복시장 20개 빈 점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형의 '청년몰 조성사업'에 공모한 결과, 최종 선정돼 국비 7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빈 점포 등 유희공간에 조성되는 청년상인 집합소형몰로써 지역문화와 기술·디자인이 융합된 공간으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상인을 통해 시장이 자체력을 갖추도록 중기청이 마련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평택 통복시장을 비롯, 전국 16개 전통시장이 선정돼 2017년 말까지 지역별 상권의 특장점이 반영된 감성 콘셉트를 설정, 전략적 업종 배치와 점포 리모델링 등 청년상인 점포 입점이 이뤄진다.

입점 후에는 '청년몰'이 조기



평택시는 2017년까지 통복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착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기존 상인과 청년상인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전문가를 통한 창업실무, 업종별 전문교육, 컨설팅 등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한다. 서미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에 관해 청년상인의 창업 기회 확대와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고객확보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충정기 기자 hjk@

예총 광주지회장, 도 지원금 사적 사용 논란

사고지회 지정대 감사 착수 이사회 승인없이 행사비 집행 조 회장 "개인 유용 없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지회(지회장 조원복·코미디언 예명 이정표)가 한국예총으로부터 사고지회로 지정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예총과 예총 광주지회(이하 광주예총)에 따르면 한국

예총은 지난 5월 28일자로 광주예총을 사고지회로 지정 통보했다.

한국예총은 광주예총을 사고지회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2016 정기총회 미실시 ▶집행부 이사·감사와의 극심한 비방·갈등으로 인한 업무 마비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예총 회장·부회장·감사·이사에 대해 5월 25일자로 권한중지 처분을 내렸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임용 절차상의

잘못된 점을 들어 역시 권한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예총은 1일 감사단을 꾸려 광주예총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예총 관계자는 "조원복 회장이 2015년 10월 9일 개최한 '제1회 팔도가요제'(주최 경기도, 주관 광주예총, 후원 경기도의회·경기도문화재단)의 행사비용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후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통상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받은 행사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원복 회장은 "행사가 급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예산을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예산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양육고민 안녕~ 부천 '가족품앗이 공간' 탄생

원매동 누리봄 육아나눔터 개소 미술·음악 학습 등 재능기부도

부천시는 지난달 31일 원매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누리봄 육아나눔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가 육아나눔터 자원사업을 추진하는 4곳 중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연 '누리봄 육아나눔터'는 73.5㎡ 규모로 육아공간과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과 도서, 육아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이곳은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아이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품앗이, 미술·음악 등 재능기부를 통한 학습품앗이 그룹활동도 지원한다.

누리봄 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만수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부천시 관계자들이 '누리봄 육아나눔터' 개소식을 갖고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동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곳에서 가족품앗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동네마다 육아나눔터가 확대돼 아이와

함께 걸어서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전업주부의 자녀 양육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4곳(원매·도당·소사·오정동)의 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18년에

는 옥길지구 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등 육아나눔터가 지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시흥 어디든지 동네변호사 출동

법률지원 전체 동으로 확대 시, 변호사 5명 추가 위촉

시흥시는 마을단위의 각종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법률서비스 취약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네변호사 제도를 6월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6월부터 지역 17개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난 30일 동네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하고, 지난해 위촉된 12명과 함께 전체 동의 법률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9월 각 동에 위촉된 동네변호사들은 동별로 월 1회에서

2회씩 생활법률에 관해 상담하고 현재까지 총 83회 157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시민들의 주민자치의식이 함양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참여 우수 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과 함께 생활법률 상담과 병행한 마을공동체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상담 사례집 및 활동에 세이를 발간, 이를 통해 미담 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네변호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유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가평군 현리 중심시가지에 준공된 '아침마루공원'.

메트남전 활약상 공원에 재조명

가평 현리 아침마루공원 준공 맹호부대 이야기 등 담아 눈길

가평군 조종면 현리 중심시가지에 주민과 관광객의 휴게공간을 만들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메트남전에서 맹활약한 메트남 장군과 맹호부대의 이야기도 담아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됐다.

공원 면적은 총 1천151㎡로, 15억 원을 들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야외 공연장을 비롯해 파고라와 벤치 등 쉼터와 녹지공간, 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가평=염건섭 기자 gsum@khihoilbo.co.kr

구리 갈매동 주민자치센터 설계공모 '강호엔지니어링' 선정

구리시 갈매동 주민자치센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이 선정되면서 건립공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갈매동주민자치센터 지구 공공편익시설용지 1-2에 건립될 주민자치센터 복합건축물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전국 4개 회사의 작품 중 ㈜강호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입상작은 당선작 1점, 우수작 1점 총 2개 작품이며, 우수작에는 무형 건축사무소의 작품을 선

정했다. 당선작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권이, 우수작은 1천400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당선작이 제시한 갈매동 주민자치센터 복합건축물의 신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전체 총면적은 4천137.55㎡이다. 2017년 상반기 착공해 2018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76억 원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된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hihoilbo.co.k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주주는 물론 근로자와 소비자, 지역사회 등과 폭넓은 관계를 가지며 일방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 등 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만족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묵묵히 실천하는 나눔

강판 매만지던 손 ‘이웃愛’ 문을 열다

<애>

임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모임 ‘연탄길’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 중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탄길’은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1999년 평택시 천혜보육원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노숙자와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랑의 밥 나누기 및 도시락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월 홀몸노인을 방문해 ‘이·미용봉사’, 결혼가정 등에 생필품과 쌀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소년소녀가정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장애 및 보육시설 지원, 저소득 가정에 연탄 지원 및 보일러 교체·수리를 해 주는 ‘연탄나눔 은행’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쌍용자동차 임직원들과 김인식 평택시의회 의장, 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평택 연탄나눔은행 발대식’을 갖고 후원금과 연탄을 전달했으며, 발대식을 마치고 소외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배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평택 연탄나눔은행은 2007년 후원을 시작한 이래 매년 임직원의 뜻을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꾸준히 지역주민들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평택 환경축제 후원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 지원
쌍용자동차는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의식 전환과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알뜰 나눔장터, 1사 1하천 가꾸기 및 평택시 환경축제 후원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제8회 평택 환경축제에 후원사로 참여해 알뜰 나눔장터와 평택 환경학생 미술실기대회를 주관하는 등 평택시민들과 함께 환경문제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알뜰 나눔장터에서는 판매를 원하면 누구나 등록 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수익금 일부는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된다.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 위해 사회 공헌활동 전개
이러한 활동 외에도 쌍용자동차는 2011년 지역 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1억5천만 원을 출자해 ‘한마음장학회’를 설립, 이듬해인 2012년부터 매년 평택지역 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환경다터제’를 평택시와 공동으로 진행해 중소기업 성장에는 남다른 기여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산학 협력활동 추진
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정비 분야의 우수 인력 육성과 정비기술력 보급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교·보재 기증은 물론 신기술 정비교육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 현장실습 기회 제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위한 ‘호두바이커’ 캠페인
쌍용자동차는 키즈세이프코리아와 손잡고 안전한 자전거 생활 정착을 위한 ‘호두바이커(호두는 안전모의 애칭으로 호두바이커는 안전모를 착용한 자전거 탑승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호두바이커 캠페인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 대부분이 머리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이 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헬멧 착용 생활화를 통한 사고 피해 최소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평택 위해
실천안 찾아나갈 것

- ▶ 최중식 대표이사.
- ▶ Kids Safe 캠페인 활동.
- ▶ 쌍용자동차 전경.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월 일정액을 기탁하는 등 나눔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평택항 마라톤 및 시민건강대회 후원, 도서 기증 등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앞으로도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후원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 밖에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하천인 도일천과 통복천 일대 정화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공, 정비교육 사이버(Cyber)연수원 확대 및 정비기술 자료 공유 등 산학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평택시 국제대학교에서 쌍용자동차 기술개발부문 이재완 부사장, 국제대 장기원 총장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기술개발부문 및 인력관리부문 임직원, 국제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쌍용자동차는 협약을 통해 코란도C 1대를 연구실 습용으로 학교 측에 기증하고, 향후 ▶공동 연구과제 선정 및 실습 ▶교수진 및 현업 종사자 연수 ▶연구시설 및 기자재 공동 사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쌍용자동차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최중식 대표이사는 “쌍용자동차는 기업시민 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성기 기자 hjk@kihoilbo.co.kr

文

명품 공연 형류.



삼성전자 DS부문 기흥·화성캠퍼스 사회봉사단은 1994년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DS부문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태동한 봉사단체다.

용인·화성·오산·평택·안성·여주 등지를 활동 대상으로 지역사회 소통, 아동·청소년 인재 양성, 소외계층 자립 지원, 사회공익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봉사단은 연평균 봉사시간이 1인당 15시간에 달했고, 정기기부 참여율과 봉사활동 참여율이 각각 95%, 98%를 기록할 정도로 그야말로 봉사의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사내 봉사팀이 450여 개에 이를 정도다.

봉사단의 주요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청소년 진로상담.

愛

소외이웃 김장나눔.

教



勞

실버 일자리 지원.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사랑으로 사람을 잇다

SAMSUNG
삼성전자 DS
기흥·화성캠퍼스
봉사로 지역과 소통

▶지역사회 소통=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걷기 축제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과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樂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사내장터 운영'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지난해 9월 12일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이 펼쳐졌다.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공동 주최한 행사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시민 1명당 5천 원의 참가비를 내고 동참하면 삼성전자가 같은 액수만큼 기부하는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펼쳐졌다.

걷기대회는 운동장 주변 경안천 산책로 6km 구간을 걸쳐 진행됐다. 시민과 삼성 임직원 등 3만4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 기부금과 삼성전자의 매칭펀드로 마련된 3억4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전액 기부했다.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시민과 임직원 2만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성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이 열려 2억1천여만 원의 성금을 조성해 화성시에 기부했다.

또 청소년 진로 탐색 교육 페스티벌인 '2015 드림樂서-용인편'이 지난해 11월 3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용인지역 31개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드림樂서'는 진로 결정에 고민이 많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희망 학과와 직업을 체험하고, 전문가 멘토와 상담하며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삼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걷기 참가자 나눔만큼 기부하는 '1+1 매칭그랜트' 용인시와 펼쳐 모종~수확 직접 기른 배추 절여 자매결연 농촌 10곳서 김장행사 문화공연 관람·'CAFE休' 등 소외·노년층 지원사업도 진행 중

삼성전자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용인시와 단국대가 함께한 이날 행사는 체험 중심의 '진로박람회' 및 유명 인사들의 강연과 축하공연이 있는 '토크콘서트'로 나누어 진행됐다.

학생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23개 직업·학과 체험부스와 각 분야의 전문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공익=사회복지시설 '세미코너브하우스' 건립이 대표적인 사회공익사업이다. 이 밖에 '겨울(여름)애 김장축제', 저소득 취약계층 연탄 나눔 활동, 노인 치매예방사업도 펼친다.

지난해 11월 19일 오산시청 광장에서 광속속 오산시장과 삼성전자 정은승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과 지역사회 봉사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해 10t의 김장김치를 담가 오산지역 저소득층 1천 가구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이 활동을 전개해 지난해 '겨울(여름)애 아삭아삭 사랑나눔 김장축제'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같은 해 8월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김장 행사는 용인·화성·평택·화천·홍천 등 자매결연 농촌 마을 10곳에서 임직원 봉사자들이 직접 배추모종 심기부터 수확하고 절이는 모든 과정에 일손을 더하고 그 채소를 김장재료로 구매함으로써 농가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김장행사를 통해 총 100t(약 5만 포기)의 김치를 담가 기흥·화성캠퍼스 인근 화성·용인·평택·오산시 관내 저소득층 1만 가정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소외계층 자립 지원=차상위계층 생필품 지원 사업인 '오케이(5km) 365 희망전사', 소외계층에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위시존(WISH ZONE)',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CAFE休', 다문화·장애인 합동결혼식, 저소득층 출산 지원 사업인 '해피맘' 등이 해당 사업이다.

삼성전자와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3월 10일 용인시청에서 문화 소외계층 객석 나눔을 위한 '2016년 문화예술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고 임직원 후원금 5천만 원을 재단에 전달했다.

협약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흥영동 삼성전자 DS부문 사회봉사단 부단장, 이명훈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 노사협의회 사원대표,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삼성전자의 객석 나눔(위시존) 활동은 경제 형편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공연장 객석의 일부를 확보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이 활동을 전개해 지난해까지 68개 작품에 용인·화성지역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1만여 명을 초청해 문화예술을 통

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감동을 선사하는 정서적 소통을 펼쳐 왔다.

올해도 용인문화재단과 협력해 2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뮤지컬과 국악, 클래식 등 수준 높은 11개 작품을 선별해 지역사회 문화 소외계층 1천100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해 12월 17일 용인시와 용인시니어클럽이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음료 매장 'CAFE休-8호점'을 용인시 처인구 모현도서관에 열고 축하행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삶에 활력을 더하고자 2011년부터 용인·화성시와 함께 'CAFE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AFE休-8호점'은 용인시가 제공한 도서관 일부 공간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모은 후원금 5천만 원을 들여 설비와 가구 등 시설 공사를 마치고 용인시니어클럽이 시설 운영과 노인들의 직업(바리스타·서비스)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을 맡는다.

특히 반도체총괄사업부별 특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메모리사업부=청소년 반도체 과학교실, 희망채색(벽화) ▶System LSI사업부=다문화 가족 지원 ▶반도체연구소=핸즈온(Hands-on) 기부물품 제작 ▶기흥·화성단지총괄=사랑의 집짓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LED사업부=희망의 빛 모아 셰이프(자매마을 LED보안등 교체) 등이다.

삼성전자 DS부문 기흥·화성캠퍼스 사회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여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행형이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olbo.co.kr



반도체 과학교실.

'희망드림' 등 인재양성 사업 활발

▶아동·청소년 인재 양성=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및 정서 발달 교육인 '삼성전자 희망드림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과학교실 '반도체 과학교실', 난치병 아동 소원 성취 사업 '소원별 희망전사'가 분야 대표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9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양지햇살 지역아동센터에서 '2016년 삼성 희망드림 협약식'을 갖고 올해 사업비로 지난해(8억5천만 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15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삼성 희망드림'은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시설물 환경 개선(희망하우스), 합창을 통한 전인 발달(희망소리), 주말 방임아동 보호·심리치료(희망토요일), 학습·진로 멘토링(희망클래스) 등 총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혜 대상은 경기도내 14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천850여 명의 아동으로 각 프로그램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스리기 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동부

본부, TMD 교육그룹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들과 협업해 추진한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반도체 과학교실'은 올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반도체 과학교실은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에서 진행되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과학교사가 돼 용인·화성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과 반도체 회로 만들기 등 실습교육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난치병 아동 소원 성취 프로그램 '소원별희망전사'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24일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이루 주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소원별희망전사 사업은 단순 기부를 넘어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아동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의미가 크다. 2007년 4월 11일 첫 협약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9억 원의 후원금이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에 전달됐으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포함해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난치병 아동 905명의 소원을 실현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난치병 아동 150명에게 소원 성취의 기쁨을 선사한다는 목표로 6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olbo.co.kr

경기신용보증재단
더불어 삶 '실천'



경기신보는 콜센터를 개소해 보증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제빵·농촌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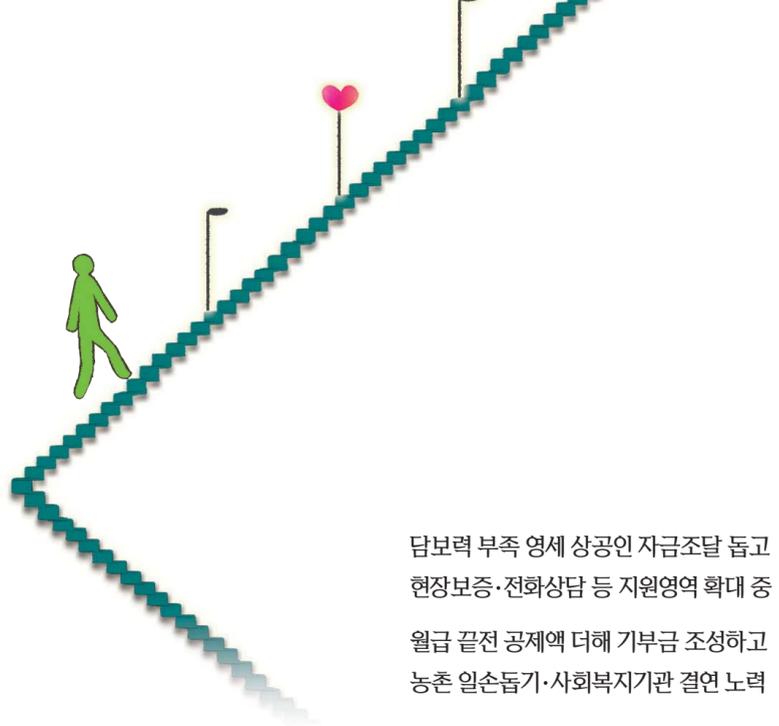


한문두문 직원 급여 '끝전 모아 태산'...

한발두발 소외이웃 소망까지 보증

올해 스무 살이 된 한 청년이 있다. 그는 지난 20년간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앞장섰다. IMF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까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청년의 이름은 바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하 경기신보)'이다. 선진 보증기관으로 그동안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살피고 지원해 온 경기신보지만 한쪽에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기관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경기신보는 업무 특성과 관련된 재능기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추진
지난해 7월, 평택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이 뜰 끊겨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었다. 월 80만 원인 가게 임대료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인 데다 가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차마 직원들 급여는 미룰 수 없어 은행 방문해 대출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담보 여력이 부족해 대출이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A씨는 '사채라도 써야겠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인근 식당에서 경기신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A씨도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경기신보를 찾았다. A씨는 직원에게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았고, 그 주에 경기신보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사채까지 생각했던 A씨가 경기신보를 통해 담보 없이, 저금리로, 1금융권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경기신보는 도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기신보의 업무 영역 자체가 사회공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평택지점의 경우 메르스 발생 3개월간 특별지원에 나서 총 1만5천236개 업체에 3천57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신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증지원은 도내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일조,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시간은 곧 '돈', 현장 중심 보증지원
경기신보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현장보증 전담팀'을 도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대표자인 기업이 온누리 지역 소재 기업, 5년



이상 단체 상담 신청 건 및 기타 현장보증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을 찾아가 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보증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일부터는 고객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경기신보는 신용보증,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전화 상담과 각종 민원에 대한 응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전화번호 콜백 서비스 등 예약상담도 실시해 고객 편의를 더욱 증진시켰다.
소상공인 및 기업은 물론 도민 모두가 고객
경기신보는 선진 보증기관이지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즉,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셈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고객인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물론 불우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먼저 사랑나눔기금 및 끝전공제 조성을 통한 기부액이 늘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보육 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사랑의열매 등 총 15개 사회복지시설에 4천200여만 원을 기부했다. 경기신보의 기부문화는 2009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노사가 함께 도내 소외계층을 돕고자 사랑나눔기금을 조성했고, 급여의 끝전도 함께 공제해 기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기부한 금액만도 총 3억7천1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담보력 부족 영세 상공인 자금조달 돕고
현장보증·전화상담 등 지원영역 확대 중
월급 끝전 공제액 더해 기부금 조성하고
농촌 일손돕기·사회복지기관 결연 노력

에 찬성하고 조성한 기부문화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밖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총 1천500만 원의 성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등 도내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했다.
지역사회 농촌 일손 돕기도 경기신보의 또 다른 사회공헌활동이다. 농번기를 맞아 지역사회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간 이해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증진을 위해 매년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양주시 한 딸기농가를 직원 20여 명이 방문해 일손을 보였고, 올해도 안성시내 양파 농가와 김포시내 배농가를 방문해 제조 작업 및 주변 정리를 돕는 등 농촌 주민들의 일손 부족에 대한 시름을 덜어줬다. 2004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파주·이천·고양·안성·가평 등 총 10개 지역의 농가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공헌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기신보는 제빵 수업을 듣고 빵을 직접 만들어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한편, 홀몸노인 지원을 위해 국수 포장에 나서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혜자 마음 헤아려야 진정 사회봉사조

인터뷰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



사회공헌을 업무라고 생각하고 조직성과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시각에만 머무는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지역민들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보다는 수혜자들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담아낸 활동이야말로 성공한 기업의 사회봉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책임에서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 사랑나눔 기부와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업무 특성과 관련된 재능기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
박광섭 기자 ksp@khiolb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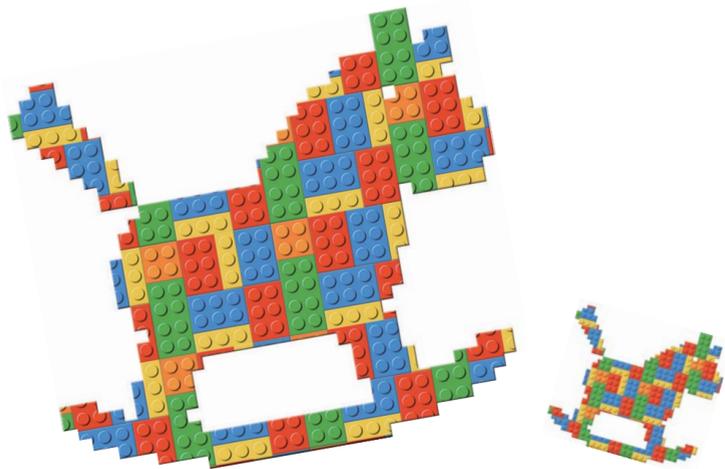
-경기신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
▶경기신보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사랑나눔기금과 임직원들의 급여 중 1만 원 미만의 금액을 공제해 끝전 공제 모금액을 바탕으로 매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있다. 기부처 또한 노조와 함께 구성된 사회공헌실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어 노사가 함께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농촌봉사활동과 지난해 사회공헌 협약을 맺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의 인력 지원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겨울철 홀몸노인 돕기 김장담그기 및 자연보호운동, 기타 사랑의 헌혈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취임 직후 라이선스버킷 챌린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사회공헌활동이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경기신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선도
경기신보의 사회공헌은 다방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김병기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쪽방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라이선스 버킷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능기부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와 연계해 직접 자금상담 및 경영 컨설팅을 총 23회 제공했고 광주소상공인연합회에 정부정책자금 교육을 실시하는 한

편, 도내 금융기관장 보증상품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이 밖에 결혼가정을 위한 송암동산 봉사활동과 겨울철 홀몸노인을 돕고자 YWAC와 협력해 진행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광고호수공원 환경미화 캠페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하계 유니폼 등 피복 400여 벌 기부, 평택 해군2함대 장병들을 위한 도서 3천여 권 및 성금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광섭 기자 ksp@khiolbo.co.kr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점점 더 확실하고 꾸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 상생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바야흐로 기업 입장에서 사회공헌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를 맞이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발맞춰 기업들의 사회공헌 패러다임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기부와 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다면 현재는 좀 더 전문적이고 개성적인 특색을 띠고 있다. 각 기업의 특성과 재능을 살린 효율적인 공헌 방식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은 물론 기업의 특색을 홍보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들여다봤다.



재활 승마 프로그램.

말과 함께 교감하며 달리니... 지친 몸과 마음 '토닥토닥'

LetsRun

**한국마사회
재활승마 재능기부**

한국마사회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한국마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렛츠런 승마힐링센터다. 마사회 고유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해 탄생한 공헌활동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3월 핵심 사회공헌 분야를 발굴할 목적에 일반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활·힐링승마', '전사 재능기부 활동' 두 가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재활·힐링승마'의 경우 말(馬)을 매개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유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신(新)치료법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승마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 참전 용사를 위한 치유승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정도다.

마사회는 이러한 재활·힐링승마의 국내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렛츠런 승마힐링센터(센터장 박진국)를 신설했다. 이후 렛츠런파크 서울 내에 직영 1호점을 개장하고 9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장애아동 40명에게 양질의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했다. 2015년 자체 시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무려 9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올해 렛츠런 승마힐링센터는 재활·힐링승마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곳에 불과했던 사업장을 올해는 4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인력양성을 위해 해외 전문인력도 위촉했다.

강습 프로그램과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는 장애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만 재활승마를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힐링승마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대인관계 미숙, 학교폭력 등의 요인으로 사회 적응에 문제를 가진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며 단체강습, 동물교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려는 한편, 말산업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진로 모색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에만 벌써 50명의 학생들이 강습에 참여 중이다. 단순히 강습에만 치우치지 않고 심리안정 상담 프로그램 등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규모도 대폭 확대해 올해는 여름·겨울 특별수업을 포함해 총 5개 학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40여 명에 불과했던 수강생을 올해는 3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바우처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정에도 강습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강습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박진국 센터장은 "재활·힐링승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

원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은 수의, 장애, 방역 등 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말산업 진로, 직업 체험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마사회는 4월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

공하는 게 목적이다. '플러스'는 취약계층이나 말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법률·회계상담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1천346명 '렛츠런 청소년 드림센터' 이용, 458명 사회 복귀 지원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 중 학교 밖 청소년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렛츠런 청소년 드림센터'를 만들었다. 렛츠런재단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렛츠런재단은 드림센터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진구,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등 12개 센터에 총 4억5천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 중랑구의 경우 상담 지원은 물론 검정고시, 바리스타, 승마 체험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줬다. 부산 진구 렛츠런 청소년 드림센터 역시 상담, 학습클리닉, 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청소년 1천346명이 드림센터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았으며, 학업에 복귀하거나 일자리를 구한 청소년도 458명에 달했다. 그 뿐만 아니라 렛츠런 청소년 드림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200여 개 창출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렛츠런재단은 15개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설립된 17개 드림센터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총 32개 드림센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렛츠런재단은 올해 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수혜 청소년과 사회복귀 청소년 확대에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승마 체험, 말산업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정규화하는 한편, 30개 렛츠런 문화공감센터와 협력해 청소년 드림센터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신 렛츠런재단 사무총장은 "올해 1천8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중 600명 이상을 학업이나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현재 계획"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자유공간과 더불어 힐링승마 체험 등 새로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함께 검토해 정부 3.0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은·윤승재 기자 ysj@khihoilbo.co.kr



작년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운영 시작 장애아동 대상 재활 강습 큰 호평 얻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선보

국내 말 생산농가에 노하우·지식 전달 재능기부 활동으로 지역 상생발전 기여

는 치료법"이라며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사 재능기부 활동, 전체 임직원 87% 참여

'전사 재능기부 활동'은 '재활·승마힐링'과 함께 마사회의 핵심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말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나 승마장이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사회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지난해 말 생산농가와 민간 승마장, 말 특성화고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현명관 회장을 비롯해 참여 인원만 600여 명. 마사회 전체 임직



▲▲ 전사적 재능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마사회, ▲ 렛츠런 드림센터 대전 개소식.

으로 제1차 '프로보노데이(ProBonoDay)'를 개최하고 말산업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천시에 소재한 말 생산농가 성수목장(대표 이종욱)을 비롯해 민간 승마장, 지역사회 취약계층, 북한이탈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현명관 회장을 포함해 참여 인원만 1천980명으로 마사회 전체 임직원의 87%에 달하는 인원이다.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마사회는 활동 영역에 따라 렛츠런 엔젤스 '프렌즈'와 '패밀리', '플러스'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프렌즈'의 경우 말 생산농가와 민간 승마장을 대상으로 수의, 장애, 방역, 육성 조언 등의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패밀리'는 학생이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 또는 말산업 진로 체험 서비스를 제

행복 이전 만드는 'G-하우징 사업'

복지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다. 하지만 이천시에서는 형편이 조금 나은 이웃이 어려운 이웃을 케어하는 사업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살기 좋은 고장 이전을 만드는 데 발맞춰 건설업체, 단체 등이 앞장서 각자의 재능을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희망을 주고 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맘 흘러 봉사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주거 형태를 개선해 주는 이들이 있어 행복한 이전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제도권의 수급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저소득 취약계층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 등 각종 생활고에 시달려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천시와 재능을 기부한 건설업체·단체가 손을 잡고 어려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5년째 펼치고 있는 G-하우징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 살기 좋은 이전을 만들고자 G-하우징 사업에 참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단체들. 2 이전 G-하우징 & 행복한 동행 재능기부 기탁식.

새 장판 깔고 문턱엔 계단... 낡은 벽에 '사랑빛' 물드네

어려운 이웃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으로, 특히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혜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사업 초창기에는 초석종합건설(대표 조정민), 성민종합건설(대표 김영근), 에이스컨테이너(대표 장치석) 등 3개 업체만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재능기부 소식을 전해 들은 건축사협회(회장 이종희), 명서원시스(대표 김종희), 지오(대표 김해숙), 대영이엔지(대표 김재문), 중앙로타리클럽(회장 허정화) 등 5개 기업·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주로 장호와 실내 인테리어 등의 재능을 갖고 있는 지오, 대영이엔지, 명서원시스는 "건축의 한 일부분이지만 다른 업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 대표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수혜자들과 대화를 하며 낡은 주택에서 가장 열악한 '단열'을 책임지고 있다"며 흐뭇한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뜻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전 시가 선진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폭제가 되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걸맞은 세계 속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이천시는 3월 말까지 대상자 추천을 받아 차상위, 홀몸노인, 장애인 등 주로 저소득 소외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선정했다. 주로 단열, 도배·장판 교체, 외벽 도색, 지붕 누수, 수세식 화장실 시설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을 10월까지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전소방서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키로 하는 등 동참을 약속했으며, 특히 이전 시 건축과는 2개월 동안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전 모으

기 행사를 통해 희망의 전등 달아주기 운동을 벌이는 등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위해 노력하고 있다.

G-하우징 주거환경 개선 사례 남편과 함께 도시에서 이천시 설성면의 한 시골마을로 내려온 이모(87)할머니.

현장을 방문해 보니 홀로 사는 할머니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귀촌의 꿈을 안고 이전에 내려왔으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30년이 넘는 가옥에서 50cm가 넘는 문턱을 넘나들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한 집을 떠날 수 없어 낡은 가옥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

성민종합건설 김영근 대표의 도움을 받아 꽃무늬 벽지로 도배하고 장판도 깔아 주며 문턱에 나무계단을 설치해 아픈 무릎을 세우며 애써 힘들이지 않고도 할머니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

막상 뜯어보니 흙벽집이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작업이 오후 7시에 마무리되는 등 고된 하루였지만 할머니의 환한 웃음에 봉사자들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고 보람을 느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중순 지체장애 3급인 동생과 살고 있는 최모(부발읍씨). 이들은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진 오래된 주택의 지붕이 새고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니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G-하우징 동참 업체인 초석종합건설 조정민 대표와 직원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직접 나서 그동안 바깥으로 출입했던 화장실을 실내에 설치하고, 주방과 보



공사 전 공사 후
성민종합건설이 50cm 턱을 넘어 다니야 하는 할머니를 위해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장판도 깔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저소득층 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복지사업 성민종합건설 등 지역기업·단체 잇단 동참 단열·외벽 도색·실내 화장실 설치 등 지원 쓰러져가는 집 다시 세워 따뜻한 쉼터 선물

일러 등을 수리·교체해 줬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따뜻한 안식처를 안겨 줬다.

에이스컨테이너 장치석 대표는 지난해 6월 중순 설성면에 살고 있는 박모 씨 집을 방문해 그들의 주거환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상수도가 공급됐으나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들에게 상수도를 연결시켜 줬고, 쓰러져 가는 집을 다시 세워 줬다. 주택 기반 기초공사, 상수도 연결 작업, 지붕 처마 물받이 설치, 지붕 수리, 현관 시멘트 미장, 현관문 교체 등 새로운 집에서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천=신은백 기자 syb@khihoilbo.co.kr

열악한 집안 환경 보고 봉사 결심

인터뷰 장치석 에이스컨테이너 대표



"처음에는 내 사업도 어려워 거절했었어요." 수차례 취재 요청을 거절해 우여곡절 끝에 만난 에이스컨테이너 장치석(47)대표의 첫마디다.

장 대표는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20대 초반까지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았다.

5년째 G-하우징 사업은 물론 남모르게 이웃을 돕고 있는 장 대표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사를 짓다 도심으로 나온 그가 처음 선택한 직업은 용접공.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돈이 모이자 2007년 컨테이너 수리 및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

장 대표의 사정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자라 무료 봉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하며 장 대표는 겸연쩍게 머리를 긁는다.

그러다 장 대표는 자신들은 건축에 대해 잘 모르니 현장을 보고 설명이라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고 봉사를 결심했다.

지난해 구제역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수질오염이 의심되는 곳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가 제일 안타까웠다고 말하는 장 대표.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상수도를 연결시켜 줬다는 대목에서 눈시울을 적셨다.

"마음이 행복해서 그런지 사업도 잘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미소 짓는 장 대표에게서 행복한 표정이 묻어났다.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상상보다 더 넓게

세계화, 정보화에 앞장서는 기호일보

많은 세상을 향해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지난날의 시간을 반추하고 새로운 내일의 밑거름 삼아 보다 맑고, 넓고, 힘있는 언론매체로 도약하길 바랍니다.

이 환

화성도시공사 이웃과 함께 성장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을 보유한 화성시는 2016년 5월 현재 인구가 62만여 명에 육박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젊은 도시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경기도내 1위의 기업체 입주율이 말해 주듯 화성시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같은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지원하는 기업이 화성도시공사다. '화성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1997년 설립된 화성시시설관리공단과 2008년 설립된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통합돼 출범한 회사가 바로 화성도시공사다.

화성시 발전에 밑거름이 돼 주는 화성도시공사의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전곡항 마리나에서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한 요트 체험 행사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어보고 있다.

사랑의 밥차~아동 학습 지원... 희망 밝히는 등불

화성도시공사의 경영 목표는 바로 '행복 나눔 경영'이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추진으로 나눔과 봉사 문화 정착,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나눔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일과 후 부별 또는 팀별 중심의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추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눔활동을 발굴, 임직원 봉사활동을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소외이웃 주거환경 리모델링 '행복나눔 사랑의 힐링하우스'와 '사랑의 의류' '행복나눔 사랑의 힐링하우스'는 공사가 2013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시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정해 공사의 인력과 기술 노하우로 집을 수리해 주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이다.

2013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15년 4호점까지 매년 주거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으며, 부서 차원의 집수리 봉사도 병행해 오고 있다.

공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화성시 관내 취약계층 및 재난을 겪는 이웃 국가에 하계·동계 생활 필수품인 의류를 지원해 왔다.

'행복나눔 사랑의 밥차'와 지역아동

'무료 강습'

공사는 지난해 총 4회의 '행복나눔 사랑의 밥차 행사'를 가졌다. 노사가 함께 참여해 결식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단체와 연계해 건강검진, 이·미용, 효음약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복나눔 경영 모토 봉사센터와 연합 무료급식·건강검진 등 지속적인 활동 소외이웃 주거개선 사업 '힐링하우스' 2013년부터 총 4곳 집수리 봉사 완료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8월 방학을 맞아 보호시설 아동 30명을 전곡항 마리나에 초청해 요트 승선 체험 및 교육, 편보트 체험, 영화감상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11월에는 수영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20명을 초청해 수영체험 학습, 탁구 등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급성장 도시, 화성 개발 수요 폭발적 증가 이같이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공사는 공공성격의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도시발전 전략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능력 강화, 개발이의

역의 유출방지 및 낙후지역 재투자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화성시 산하 공기기업이다.

화성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은 자체 개발하는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으며 신규 사업은 동탄2지구(A-36BL, A-42BL) 공동주택 건설이 있다.

여기에 위·수탁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현충탑 재정비 등이, 위·수탁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 관리 운영 등 16개 사업이 있다.

조암 공동주택 건설과 전곡 해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암 공동주택사업은 화성시 서남부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 및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 도시기능을 유도하고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조암지구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양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주거 공급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곡 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은 지난해 3월 전문 분양 대행업체를 선정해 분양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그 외 필지 분할, 신규 업종 추가(총 16개) 및 업종 혼용 배치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분양 전략을 통해 분양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분양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누계 분양률이 14.7%에 불과했으나 2016년 5월 현재 분양률 37.4%를 달성했으며 2019년까지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전철 기자 jch@kihoilbo.co.kr



인터뷰

윤용택 상임이사

경영 위기 극복 에너지 삼아 열혈 나눔

-재정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던 화성도시공사가 지난해부터 놀라게 발전하고 있다. 재도약 배경은.

▶공사가 대외적으로는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경영 악화로 대외 이미지가 심각히 실추돼 존립 자체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실적 부진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극심한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는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놀라운 실적을 거둬 이 같은 경영 정상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공사로 발전하고 있다.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화성도시공사는 2008년 창립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 왔으며,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네팔 지원과 지역 및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의류 나눔 행사, 노사 협력을 통한 사랑의 힐링하우스,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직원들이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행복나눔 사랑의 밥차 활동으로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산사태로 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지킬수 있는 사방댐 ! 산림조합이 튼튼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푸른숲반세기! 새 희망의 도약!!
여주시산림조합

사방댐 사진

산사태발생 사진

의식주 기부로 따뜻하게... 나눔 펀드로 더 든든하게

경기도공사 특색있는 사회공헌

경기도공사는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상'을 수상했다. 최고명예대상은 누적기부금 5억 원 이상인 법인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고명예대상을 받은 것은 도시공사가 처음이다.

도시공사는 1997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주위의 소외된 곳 구석구석에 손을 내밀어 왔으며, 중소기업부터 미래의 인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맞춤형 복지마을, G-하우징, G-UM(지움) 등 도시공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사랑의 김장 나눔, 아동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등에 정기적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공사만의 특색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이 김치 담그기 행사에서 김치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 최금식 경기도공사 사장(오른쪽)이 대한적십자사 최고명예대상을 받고 있다.
▲ 임직원들이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낙후된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주는 'G-UM(지움) 리모델링'

지움은 2013년 도시공사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으로, 주거환경 분야 대표 NGO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국내 1위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LG하우시스, 도시공사 지움봉사단이 함께하는 도시공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도시공사는 2014년 지움 1호점인 남양주 노인공동생활시설인 '사랑의 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2호점인 남양주 노인공동생활시설 '안나의 집', 3호점인 안산 장애인복지시설 '만나복지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총 3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4호점으로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아동생활시설인 '우리공동체'를 선정했다. 우리공동체는 17명의 장애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공사는 시설 내·외부 단열·도배·도색 공사, 출입구 리모델링, DIY가구 제작·설치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들에게 꿈을 선사하는 '꿈꾸는 공부방'

꿈꾸는 공부방은 도시공사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매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등 도내 20여 개 시·군 총 61개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공간 리모델링과 문화예술 공연 체험, 학습용품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도시공사는 시설 리모델링 대상 10곳과 교육기자재 후원 대상 10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관 선정은 경기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미래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다. 도내 31개 시·군 저소득층 고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매년 신입생을 선발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장학생 및 가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올해

장애·노인시설 선정 도배·도색 등 작업

2014년부터 지역 3개 시설에 사랑 실천

교육기자·장학금 기부 인재양성도 시작

노사 매칭 후원 통해 조손가정 돕기 눈길

다양한 봉사 인정 '최고명예대상' 받기도

도 지난해 선발된 기존 장학생 58명에게 총 5천8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으며, 향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40여 명을 추가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의(내복)·식(김치)·주(연탄) 나눔 실천

도시공사는 지난해를 나눔문화 확산의 해로 정하고 도내 다양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기부와 봉사를 통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했다. 그 일환으로 도내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생활 필수요소인 의식주와 관련한 기초생활 물품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18일 도시공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

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 6천 포기의 김치를 직접 담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고, 12월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만 장의 연탄을 제공했다.

'희망키움펀드' 조손가정 결연 후원

도시공사 임직원 165명은 도내 조손가정과 후원 결연을 맺고 매일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후원금은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임직원 기부금에 도시공사 기부금이 추가되며, 모인 기부금은 도내 열악한 조손가정 총 72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농협상품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총 2천240만 원을 기부했고, 회사는 6천636만 원을 기부했다.

응급구호품 제작 지원

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매년 재난·재해 이재민 등을 위한 응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품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직접 제작,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재해 피해자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

2013년 한여름 폭염에는 홀몸노인 270가구에 쿨매트를 전달했고, 2014년 세월호 사고 시에는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한 구호품과 임직원 성금 등 3천700여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네팔 지진 피해자들에게 구호품과 임직원 성금 등 1천500여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해외 구호 사업에도 참여했다.

강나눔 기자 hero43k@khihoibo.co.kr

공부방 정비~장학금 새싹 키우기 매진

인터뷰 최금식 경기도공사 사장

-지방공기업 최초로 대한적십자사의 최고명예대상을 받았는데.

▶G-UM(지움) 리모델링 사업, 꿈꾸는 공부방 등 도시공사의 '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 덕분에 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도시공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분야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도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계획은.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은 시·군 협의를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을 병행 추진하겠다. 특히 지움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안으로 4·5·6호점을 완료할 예정이다. 꿈꾸는 공부방도 지역아동센터 20

개소를 새롭게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어캠프·공필 숙박 체험 등 취약계층 아동 대상 문화·역사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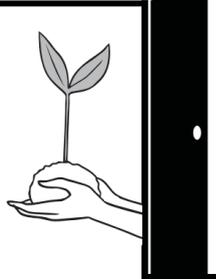
밝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설...

국가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경제동맥이며 끊임없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무한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로 최적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정진하겠습니다.

와이에스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 창립 이후 매년 사회공헌 봉사에 앞장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 농민들의 행복이 눈길을 끈다. 왼쪽부터 연탄배달, 김장나눔봉사, 자매마을인 전남 곡성 대평1구 마을 일손돕기 현장.

지역 소외층에 행복 주고 도농교류 마을과 상생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 따뜻한 동행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이사장 이소범)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식적인 사회공헌 봉사단체로,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복 나눔과 상생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랑나눔단은 2011년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득해 2012년 3월부터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적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도매법인 임직원, 중도매인, 입주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6년 5월 현재 285명이다. 그동안 사랑나눔단은 김장 나누기, 행복한 명절 만들기, 화재 취약가구 소방기기 전달 등 '사랑 나눔 실천' 활동과 전남 곡성 대평 1구마을, 인천 무의도 포내어촌계, 제주 대정읍 지역아동센터와 '1사1촌 도·농교류' 등 2가지 나눔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사랑나눔단의 나눔활동 실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의 나눔 실천 중 가장 큰 행사는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꼽을 수 있다.

매년 김장철이 되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추, 무, 젓갈 등 신선한 김장재료를 구입, 도매시장 유통인과 새마을운동 구리지회 회원들이 김장 5천 포기를 담가 1천200여 상자에 담아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센터, 지체장애인협회,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랑나눔단은 2014년 구리소방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사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는 사랑나눔단의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나눔 실천활동이다.

연탄 배달 봉사를 시작한 계기는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00장의 연탄이 지원되는데,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선 한 가구에 연탄 600장 정도가 필요해 연탄 300장씩 10가구에 총 3천장을 전달했고 올해는 3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장학금 및 격려금 행사도 눈길을 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도매시장 소속 미화원, 하역원 등을 후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도록 장학금과 격려금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행복한 명절 만들기, 수박 나눔, 사랑의 이불 기증, 사랑의 쌀 전달식 등 다양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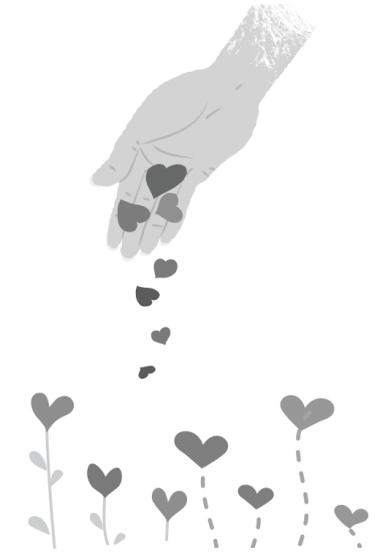
1사1촌 도·농교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3년 7월 도매시장의 우수 출하지역인 전남 곡성 대평 1구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제값 받기 현장 설명회를 가져 포장 방법, 출하 요령 등을 설명해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우수 출하 주민자들을 도매시장에 초청해 시장 체험행사도 가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사랑나눔단 회원 35명이 곡성으로 내려가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 풀매기 등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활동도 펼쳤다. 2014년 10월에는 수협중앙회가 추천해 준 인천 무의도 포내어촌계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에 이어 어촌과도 다양한 도·농교류를 펼치고 있다.

또 제주 대정읍 지역아동센터와 1사1촌 결연으로 지난해 11월 대정읍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 2박 3일 동안 도매시장 견학 체험과 놀이공원, 고궁 관람, 남산타워 구경 등 추억을 남기고 돌아갔다.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맺은 대평 1구마을, 포내어촌계, 대정읍 지역아동센터와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출하지역과 도매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구리



2011년 9월 창립총회 개최 본격 활동 시작 김장나눔·연탄배달은 물론 장학금 기증도 출하지·도매시장 동반성장 프로그램 가동 고객 중심 마인드 '새 시장 만들기'도 박차

▲ 1사1촌 자매마을 농촌일손돕기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제주 대정읍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 자매마을 비닐하우스 치기, 변화와 혁신-새시장만들기운동 선포식.

농수산물물공사(사장 김우호)는 도매시장 전체 유통인과 함께 쾌적한 환경과 생동감 넘치는 도매시장을 조성하고 새 시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로 재무장하고 도매시장을 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먼저 정문과 패러핏, 방음벽 하단의 보기 싫은 벽면을 활용해 벽화를 그림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환경 정비의 날을 정해 도매시장 전역과 구석구석의 묵은 쓰레기를 청소하고, 식물일을 맞아 화단을 정비하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청과동 데크 앞에는 고객이 찾는 점포가 어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 청과동과 수산동 데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눈비가 올 때도 농수산물 유통이 원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공사 인접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 냉동창고 등 도매시장 활성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을 오픈해 생산자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매장 벽면에 쌓인 먼지 제거 및 새롭게 페인트를 칠하고, 전선과 에어컨 실외기를 정리하

는 등 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유통인 모두는 고객 중심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새 시장 만들기 운동 선포식을 갖고,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한 정신문화운동으로 ▶ 고객에게 친절과 정성 ▶ 불쾌한 고객행위 금지 ▶ 농수산물 정량 판매 ▶ 원산지 표시 ▶ 투명 거래 정착 ▶ 쓰레기 반드시 분리배출 ▶ 시장환경 청결 유지 ▶ 고객에게 주차장 양보 ▶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 청결한 새 시장 조성 등 10가지 사항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새 시장 노래를 출근·점심·퇴근시간과 경매 전에 방송해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배지와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도매시장 유통인이 다함께 고객 마인드 변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할어 중도매인들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 고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고객행위, 중량 속임, 실내 흡연, 원산지 속임의 4대악을 일소하기 위해 공정 거래질서 확립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자정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구리=윤덕선 기자 dsyun@khihoilbo.co.kr

2016

남인천방송 가입자와 함께하는 자선 골프 행사 2016. 5. 27 (금) SKY2 하늘코스



NIB 남인천방송 1544-0777 www.nibtv.co.kr

'남인천방송 자선골프행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큰 감사드립니다.

참가자들의 참가비는 전액 이웃돕기 기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 참가자** 강영길, 강태원, 구숙현, 김근영, 김대희, 김덕주, 김란용, 김범동, 김범식, 김복용, 김선숙, 김성환, 김숙자, 김연숙, 김용배, 김원용, 김은영, 김재익, 김정숙, 김조환, 김종구, 김지선, 김현태, 김형용, 김혜숙, 김희윤, 노연숙, 마경희, 문현식, 박규영, 박문선, 박복자, 박석범, 박지혜, 박진용, 박하진, 배요한, 배호영, 배효순, 백봉철, 백옥주, 백정용, 변원기, 빈동욱, 서대중, 성기숙, 신경식, 신승현, 심경희, 안경희, 안수희, 안종래, 양춘호, 오석진, 오종호, 양영진, 유만석, 유이분, 윤현수, 윤현준, 윤희원, 이경근, 이경화, 이미영, 이상현, 이선숙, 이성기, 이수임, 이숙진, 이순영, 이영운, 이영진, 이유재, 이정애, 이종근, 이종애, 이찬중, 이해구, 이형래, 이호경, 임갑진, 장정옥, 장진, 장홍식, 전운미, 정성운, 정영면, 정영수, 정태화, 조병희, 조선희, 조춘선, 주중호, 최광현, 최선례, 최선용, 최성환, 최영석, 최정애, 최정임, 최효희, 하선주, 하재영, 한경구, 허연순, 황용순, 황현정(총 107명)

지역 사랑 희망 Ch4 남인천방송 우리지역 대표방송 NIB남인천방송

경기농림진흥재단 그린문화 공동체 확산



쇼팽카트로 만든 정원을 손질하고 있는 농림진흥재단 봉사단.

전국 유일의 '녹색·농업부문 공공기관'인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에 따른 환경정화활동뿐 아니라 녹색문화공동체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는 '시민정원사'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며 경기도민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재단은 가평 연인산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 도내 농산물 홍보와 더해진 불우 이웃 돕기, '미니 정원' 기부 등 조용한 사회봉사로 재단 본연의 '녹색·농업' 가치에 걸맞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6차산업 활성화와 농업·정원문화 발전 등에 밑거름이 되는 데 멈추지 않고 재단의 각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 사회와 도민 체감복지 향상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있는 농림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되돌아본다.

농업·정원문화 발전 ~ 일자리 창출 '녹색복지' 깃발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함께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

농림재단은 2010년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의 위탁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6년째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을 매년 2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다. 임직원들은 매년 날씨가 많이 찾는 용추계곡 주변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한다. 지난해에도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승안리 집단시설구부터 용추버스 종점 4km 구간과 용추버스 종점 일원, 숲체험관과 물안길 3km 구간까지 총 7km를 다니면서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올해 역시 여름휴가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가평 연인산을 찾는 8~9월경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재단 관계자는 "소박한 활동이지만 연인산 도립공원 내 쓰레기 수거를 통해 조금이나마 환경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재단의 사회적 책임의식도 고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농림재단 농기일손돕기 봉사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왼쪽). 감자수확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봉사단.



마을정원 만들기·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창의적 농촌체험교육

농림재단 사회공헌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재단이 추진하는 자체 사업과 연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구체적 로드맵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공헌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다.

농림재단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군포시 산본1동의 '마을정원 만들기'를 위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도왔다. 나아가 정원학습을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총 10회에 걸쳐 정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산본1동 국민인대주택 경로당 앞 등 총 14개소(312㎡)에는 마을 주민들이 손수 가꾼 마을정원이 조성됐다.

농림재단 관계자는 "녹색공간 소외지역인 임대주택 골목 활성화를 통해 '녹색복지' 실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농림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한부모·조손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촌마을·문화유적지 등을 연계한 창의·인성교육도 실시했다. 이른바 '창의적 농촌체험교육'으로, 지난해에는 의정부 나눔공부방 등 14개 기관 청소년들이 총 13차례에 걸쳐 농촌과 접목시킨 체험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사회봉사·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은 '시민정원사'

시민정원사는 경기도와 농림재단이 2013년 전

국 최초로 마련한 인증제도로, 정원문화 활성화와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한 녹색문화공동체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증제도다.

농림재단은 그동안 제1기 시민정원사 84명을 시작으로 389명의 시민정원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농림재단을 통해 신구대학교식물원, 한경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등에서 120시간가량의 식물 이해, 식물관리, 정원 조성 관련 교육을 수료한 뒤 수목원, 식물원, 도시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원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아파트 부녀회, 주민센터, 학교 등의 실내외 공간에서 예쁜 화단을 조성하거나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원문화와 관련한 생활형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다.

농림재단 관계자는 "최근 시민정원사가 창업을 하거나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볼 때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물론 주부, 시니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시민정원사 2기와 3기 38명이 시작했지만 올해는 1기 10명과 4기 10명이 새로 가입해 조합원이 58명으로 늘었다.

농림재단은 이들 시민정원사와 함께 '학교 숲'을 가꾸는 활동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는 시민정원사를 포함, 총 1천308명이 참여해 도내 친환경 학교 숲 조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식재 및 관수, 잔디 관리 등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카트정원' 기부활동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도내 농가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농림재단 전 직원들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해 6월 감자와 양파 등 밭작물 출하 시기에 도내 농가에도 농번기 구직과 봉사활동이 크게 줄면서 농가들은 일손 부족과 노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농림재단 임직원들은 도내 감자·양파 재배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 및 집하를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당초 농림재단은 이날 직원 체육대회가 예정되었으나 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학교급식 납품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육대회 대신 봉사활동을 택했다. 농림재단은 앞으로도 도내 농가가 위기에 놓였을 때 이 같은 일손 돕기 봉사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와 맞물려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등 도내 9개 사회복지시설에 '쇼팽카트'로 만든 정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로비에 기부된 카트정원은 시설의 특성에 맞춰 조성했으며, 복지관 회원들 및 이웃 주민들이 '생활 속 정원문화'를 즐기는 계기가 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농산물 홍보 + 지역사회 공헌 지속 추진

인터뷰 최형근 농림재단 대표이사

농림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매년 2회 추진하는 연인산 환경정화활동이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 2010년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을 위탁관리 하면서 환경정화활동도 시작하게 됐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용추계곡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여름 행락철만 되면 불법 쓰레기가 넘쳐난다. 2010년부터 매년 2회씩 민·관·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림재단 임직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정화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도립공원 내 쓰레기 수거는 물론 호수 주변의 하천 내 발생한 부유물 집과 침적된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림재단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과정에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을 꼽자면,

▶ 지난해 온 나라가 메르스 사태로 시름을 겪은 바 있다. 6월 감자와 양파 등 밭작물 출하가 시작됐지만 농번기 구직과 봉사활동이 크게 줄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농림재단 임직원들은 안성 등의 감자·양파 재배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과 집하를 도우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식재료로 납품되는 이들 농가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감자 재배농가 농민이 메르스로 인해 제때 수확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기쁨을 표현했는데, 그 순간이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재단은 앞으로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계획인가.

▶ 극심한 경기 침체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소중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일상적 마케팅 활동에 봉사·기부활동을 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이 각 기관이나 기업의 특성에 맞춰 다양해지고 있는데, 농림재단 임직원도 재단의 특성에 맞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불우 이웃 돕기 등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내 봉사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년째 가평 연인산 전직원 환경정화 활동

농촌체험 콘텐츠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마을정원만들기 활성화 등 각종 사업 추진

구인난 심각 도내농가 일손돕기도 구슬땀

한경대 등 지역대학교 연계 총 389명 배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환경정화 ▲ 시민정원사 봉사 활동 중 ▲ 농림진흥재단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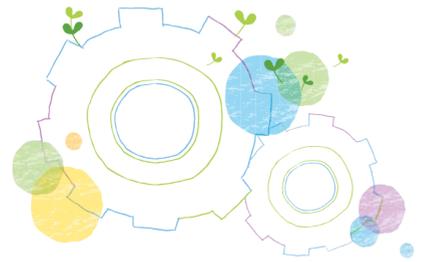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과학세싹키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따뜻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과학세싹키움', '사랑의 헌혈행사',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 '지역 환경정화활동', '취약계층 자원봉사' 등 모든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동센터 체험교육 4년간 1000명 과학 꿈나무들에 사다리 놓았죠



과학체험교실 4년간 1천여 명 참여
경기과기원은 과학문과 확산사업을 활용한 '과학세싹키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과기원의 주요 사업과 연계한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처음 시작됐으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청소년의 '과학꿈'을 키워 주기 위한 과기원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활동 첫해인 2012년부터 지금까지 평택지역아동센터, 햇빛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웃음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과학

산학연지원본부는 사회복지법인 '좋은집'(안양시 소재 보육시설)을 찾아 놀이터 정리, 정돈 및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바이오센터 50여 명의 임직원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 김치 1천 포기를 담가 후원금과 함께 불우 이웃에게 전달했다.

경기도로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위탁관리받아 운영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는 2014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주민센터와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육교 환경정비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역 맞춤형 '1사(社)1교(橋)' 협약을 맺고 육교에 꽃을 식재하는 등 주변 환경정비활동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도내 청소년 과학문화 확산 30곳 아동센터 교육 지원
직원들 헌혈운동 정기 동참 4년 만에 377명 증서 기부
1사1교 환경 정비·신생아 모자뜨기 등 릴레이 봉사중

사랑애 헌혈 약정 등 나눔 실천 전방위로

경기과기원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애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440명이 참여해 377명의 헌혈증서를 기부, 혈액이 필요한 지역 이웃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전달했다.



1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도내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과학체험교실을 운영 중이다. 2 홀트작업장을 찾아 정기적 봉사활동 펼치고 있는 직원들. 3 바이오센터 연구원들이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에 동참하고 있다.

체험교육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 모형 진공청소기 만들기 ▶ 풍향·풍속계 만들기 ▶ 공중부양 팽이 만들기 ▶ 빛 합성기 만들기 ▶ 풍력자동차 만들기 등 다채로운 과학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과기원은 현재까지 3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도내 1천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교육을 펼치며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한 교육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본부별 임직원이 매년 참여하는 테마형 릴레이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릴레이 봉사활동은 본부별 팀워크 향상 및 임직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경기과기원은 측은 설명했다. 홀트보호작업장 봉사, 장애인복지시설 배식활동, 홀몸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자원봉사, 지역 환경정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

정책연구본부 전 임직원은 고양시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인 홀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장애인들과 함께 쇼핑백에 끈을 묶는 작업과 봉투를 접어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경기과기원은 2014년 경기혈액원과 정기적 헌혈운동으로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자 헌혈 약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임직원 자원봉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바이오센터 연구원들이 주축으로 함께하는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는 2013년 12월 임직원 간 여가 및 취미생활의 상호 교류를 위해 지정된 '문화의 날'에 바이오센터에서 처음 시작됐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2007년부터 진행해온 캠페인으로 신생아들을 위해 모자를 직접 떠서 아프리카·아시아 등 체온 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28일 미만의 신생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랑 나눔 캠페인이다.

바이오센터 연구원들은 세 달간 점심시간, 개인시간 등 짬짬이 시간을 내 신생아 모자 30개를 손뜨개로 만들어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매년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을 진행, 연구원들이 정성껏 만든 털모자를 기부하며 아프리카의 소중한 어린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인터뷰 **곽재원** 경기과기원장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공기관 사회책임 모범



"올해 개원 6주년이며, 경기도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과기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원장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며 "임직원들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경기도내 산하기관으로서의 기본임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연구와 도내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 네 가지 세부 사업 부문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듯이, 앞으로 과기원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장기적 안목으로 각 본부의 역량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조화들을 고려해 기획 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본부·센터에서 추진 중인 '과학세싹키움', '사랑의 헌혈행사' 등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곽 원장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 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과학기술 전담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로드맵

1단계 (~2015년)

- ◎ 전략적 사회공헌 체계 수립
- ◎ 부서별 전담자 지정, 봉사단 브랜드화
- ◎ 사회공헌활동 피드백
- ◎ 사회공헌 마케팅활동 강화

2단계 (~2017년)

- ◎ 타 공공기관·단체와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 운용
- ◎ 사회적 약자 계층과 함께하는 전사적 테마 프로그램 개발
- ◎ 지역사회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3단계 (2020년~)

- ◎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기업문화 정착
- ◎ 나눔문화 실현의 1등 공기업 달성

임직원 “지역과 더불어” 앞장



1인 1회 이상 땀흘리기 실천 중

통합 출범 2년 6개월을 맞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눔 상생경영을 통한 대도약에 나섰다. 고용 차별화를 탈피한 인사 개선 시스템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기어 올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중 최단기간이라는 점에서도 값진 성과다. 여기에 성남시가 시행 중인 약성 채무 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에도 전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 올바른 금융의식과 선진국형 기부문화 선도 등 모범 공기업으로서 윤리적 가치도 제고하고 있다. 고객존중, 창의경영, 효율증진, 봉사행정을 중심으로 사람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유 있는 도약을 들여다봤다.

자발적 나눔 실천 봉사단 ‘봉우리’ 창단을 통해 전 직원 사회공헌활동

봉사하는 우리라는 의미인 봉우리(단장 황호형)는 사회적 책임에 따른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14년 창단 후 사랑의 헌혈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다·해드림 하우스 사업), 자매결연 지역(전남 신안, 경북 상주) 일손 돕기 등은 봉우리 봉사단의 대표 상생봉사다. 자신의 깨끗한 피와 건강한 육체,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는 봉사라 하겠다. 한 끼 밥값만 있으면 누구든 가능해 때로는 봉사자를 선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매년 봉사자 수로 따지면 전 직원(780여 명)을 넘어 900여 명에 달한다. 모든 임직원이 1개 이상의 나눔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직원들은 각자 140여 개의 봉사활동을 펼쳤고, 이를 시간으로 따지면 7천500여 시간에 이른다.

기부봉사도 줄을 잇는다. 틈틈이 모은 신용카드 포인트와 희망의 선물 동전 모으기, 소년소녀가장·저소득·홀몸노인 경제 후원 및 장학금 지원 등에 임직원들은 매년 2천여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입원 등 취임식에서의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받는 기부문화는 정착된 지 이미 오래다.

이 밖에도 바자회 등을 통한 아름다운 가게(여성의 심장 등) 중고 물품 기부도 매년 1천500여 점에 달한다.

전 직원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우리 사회의 이웃은 물론 농어촌 지역까지 상생의 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천선(수정도서관 소속)팀장은 “지난해 상주시감 따기 봉사에 참여했다 일이 힘들어 고생했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민들과 나눴던 따뜻한 정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됐던 계기”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청년을 배려하는 상생시스템

출범 후 공사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기준(NCS) 도입과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CS 삼진아웃제 도입 등은 인사관리 신뢰도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 ‘모든 정책은 일자리 중심’이라는 정부 패러다임에 발맞춰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별도 수립, 지난해 91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을 8명 고용했고,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실버인력 11명을 별도로 채용했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라는 의무에 청년인력도 43명을 고용했다. 이는 채용인원 대비(91명) 47.3%로 전년(청년고용 15명)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는 장애인 근로자 51명(현원 대비 6.54%)이 채용됐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비율도 공공기관 법적 의무 고용률 3%를 훨씬 상회한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로 일컫는 고객서비스 분야에 경중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방 공기업들 각각의 특성상 청년 정원이나 장애인 근로자 등을 채우지 않고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사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장애인 채용으로 고용 창출에 힘을 보탬 방침이다.

청년인턴 임현지(탄천종합운동장 소속)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기업들에 지원서를 내 봤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약정을 체결했다.

일손돕기부터 매년 2000여 만원 기부까지 사내 봉사단 봉우리 주축 나눔 기틀 마련 장애인·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적극 고용 통합출범 2년여 만에 흑자전환 시너지로

번번이 탈락하다 공사의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됐다”며 “인턴이지만 청년실업률이 높은 시기에서의 공기업 업무 경험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리적 빛 탕감운동 ‘롤링주빌리’ in 성남 프로젝트 지속 참여

2014년 (세희광살림과 연계한 성남시 부실채권 소각 릴레이에 시 산하기관 최초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출범 당시 임직원 692명이 모금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총 1천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전 직원(778명)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중 216명의 임직원은 3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매일 자동이체로 약정까지 한 상태다.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인들의 탐욕에 반발한 월스트리트 시위 주도자들이 2012년 11월부터 벌이고 있는 빚 탕감 시민운동이다. 늘어만 가는 저신용자의 신용 회복을 통한 가계경제 활성화 지원이 목적이다.

금융시장에서 부실채권이 통상 원금의 1~10% 내외의 할값에 거래된다는 점에 착안, 시민들의 성금으로 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한다. 보통 5년 이

상 된 장기 부실채권이 대상이다. 이에 공사는 2014년 9월부터 범사회 연대를 통한 모금운동으로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성남시의 롤링주빌리 빛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통합 출범 2년 6개월 만에 경영환경 개선으로 대도약

성남시설관리공단을 흡수 합병한 통합 공사가 출범 2년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기도내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최단 시일 내에 이룬 성과다.

출범 첫째 매출액 511억 원에 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듬해 매출액 626억 원에 영업이익 4억4천만 원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 8억 원을 달성했다. 지역사회를 향한 임직원들의 헌신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출효과가 맞물려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실로 지난해 공사는 경영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지방공기업학회)과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여성가족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우수 근로장학기관 선정(교육부), 무재해 5배수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일궈냈다.

공사는 올해 뚜렷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사업수지 3.5% 이상 개선과 고객만족도, 사회공헌활동, 청렴도 등을 향상시켜 ‘시민이 신뢰하는 1등 공기업’의 2020 비전을 수립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당과 판교 IT테크노밸리를 연계한 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인 백현지구 도시개발과 성호공설시장 건립 대행, 서현지구 등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호형 대표이사는 “그 무엇보다 성남시민에게 공공 이익을 환원하는 공적 책무를 달성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임직원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연결고리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될 때 지속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과 사람을 통한 헌신적 재분배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지역 가치를 창출해 내고, 이로 인한 성공적인 개발 모델 완성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명실상부한 1등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봉우리봉사단을 중심으로 꾸준한 봉사를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 단천면 하천정화활동.
- 재능나눔을 위한 성남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 직원들의 아름다운기부행사.



▲ 저소득층 가정·지역아동센터 등에 국산 목재로 만든 책걸상을 기증하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 5월 열린 여주 임산물종합정보센터 개관식서 테이블 커팅을 하고 있다.
▶ 노인회·경로당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찬치를 열고 있다.



숲의 사랑 품은 책상 위로... 아이들 푸른 꿈이 쑥쑥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활용한 나눔사업

전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국산 목재 책걸상을 꾸준히 기증해 오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여주시에 임산물유통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를 개관했다. 청정 임산물의 새로운 소비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산림분야 6차산업 촉진을 위한 센터는 2년여 사업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7일 문을 열었다.

센터의 상인인 세계 최대 크기의 '세종대마' 목마 조형물과 숲 체험관, 숲 치유놀이관, 임산물 전문 음식체험관(산해진미), 숲 카페, 임산물 정보관, 임산물 전시판매장, 기획·전시홍보관, 임산물 저장·가공시설로 구성돼 있다. 전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국산 목재 책걸상을 꾸준히 기증해 오고 있고,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숲선수범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한다.



'산림의 모든 것' 여주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트로이 목마 닮은 상징 '시선집중' 힐링놀이터·요리교실 보러오세요

전국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국산 목재 책걸상 기증

산림조합중앙회는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 한울지역아동센터, 여주 선우학교 등 전국 47개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시설 외에 소외계층 334가정에 국산 목재로 만든 학생용 책상·의자 840조와 좌탁 111개 등 2002년부터 지금까지 16억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를 기증했다.

14년간 국산 목재로 의자·좌탁 제작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16억 상당 기부 애국지사 묘역 별초·장학사업 꾸준

채용·직원포상 때 다자녀 가정 우대 출산장려·양육 지원 공기업 중 최다

이 물품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산림조합에서 제작했으며,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추천받았으며,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가정 등에 우선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약하나마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데 힘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240여 가정과 시설·단체에 재능기부 및 현물 후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림조합은 지난해 우리 사회 곳곳의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재능기부를 비롯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후원,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국민과 함께 했다.

전국 회원 산림조합과 함께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는 조합의 특성을 살린 애국지사 묘역 수목 정화 및 별초, 도움이 필요한 시설과 가정의 청소와 빨래, 따

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용 목재 땔감과 목재 펠릿 등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산림조합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사 1다자녀 가정 후원,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 재활용 가능한 의류를 수집(6천여 점)해 전달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240여 가정과 시설 및 단체)에 온정을 전달했다.

산림조합, 숲을 키우듯 다자녀가정 지원

산림조합은 다자녀가정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출산의 고귀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산림조합과 함께 1사 1다자녀 가정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자녀가정 지원 활동은 다자녀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2016년 2월 출생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환기를 위해 산림조합이 앞장서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은 신규 직원 채용에 다자녀가정 지원자 5% 가산점 부여, 임신부 및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 시행,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7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 직원 포상 등 민간 및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석형 중앙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져 '멸종위기 1호는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푸른 숲을 가꾸왔듯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데 산림조합이 앞장서겠다"며 "할 평군수 재식 시절부터 다동이 가정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합평균 8남매 다자녀가정의 흥가운(현 17세)양과 2011년 결연을 맺고 친부녀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은 숲과 나무를 키우듯 저출산사회를 극복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와 산림조합중앙회 간 1사 1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전국 산림조합의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위한 육아·생활용품 지원, 아이와의 대화, 함께 놀아주기 등의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5월 여주에 문을 연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는 산림의 변천 과정, 산림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임산물 정보는 물론 임산물의 모든 것을 모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임산물 저장·가공시설은 임산물의 가공 과정을 보여주는 시각적 홍보와 시설 내 소요되는 임산물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단기 임산물의 간편식 개발과 보급(대추채 등)에 가공시설 도입, 임산물 전문음식 체험관 메뉴와 연계해 향후 간편 가정식(Home Meal Replacement) 상품의 개발 및 전처리 시설이다.

어린이 산림치유 프로 운영 일품메뉴·간편식 보급 촉진 아웃렛 등 방문객 연계 기대

저장시설은 국내 임산물 유통시장 변동 요인과 연계한 원물 수급 및 판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가공시설은 GAP 및 HACCP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요소를 전면 차단했다.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지상 1층에 있는 숲체험관·임산물 전시판매장은 산림의 대중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우리 임산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융·복합 마케팅을 통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숲체험관은 건물 내부에 대형 수목 식재를 통한 숲 조성으로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버섯 등 산림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산물을 이용한 음료 및 한방차류 제품 등 숲과 사람의 조화를 통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임산물 전시판매장은 방문객들을 위해 계절별·지역별 특산 임산물 전시·판매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객 편의를 위한 동선을 구현하고 매대는 산림조합 이미지에 걸맞게 국산 목재를 사용했다.

산림치유놀이관에는 임산물의 이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 등을 체험하고 자연스러운 놀이 문화로 승화해 일자 취업 미래 성장을 위한 잠재



▲▲ 요리교실이 열리는 임산물 전문음식 체험관.
▲ 원경희(오른쪽) 여주시장이 시 관계자들과 함께 임산물 전시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객인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한다.

종합정보관에는 센터의 명물 트로이목마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여주 아웃렛과 영동고속도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데 앞으로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물 전문음식 체험관에서는 우리 임산물의 다양한 요리법을 실현해 섭취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는 2014년 먹거리 임산물 외식사업 모델 개발 용역을 통해 참고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전율이 빠른 경쟁력 있는 일품 메뉴를 도입, 국산 청정 임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음식체험관 일부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임산물 소비 촉진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임산물 요리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박신양 파워' 조들호 안방극장 화려한 퇴장

마지막회 전국 시청률 17.3% 기록
KBS 월화극 부진 탈출 결정적 한방
후속작 '백희가 돌아왔다' 6일 방송

'일개' 동네변호사가 서술 퍼런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변호사 조들호의 영웅적 활약을 그린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5월 31일 막을 내렸다. 조들호 역의 박신양이 보여

준 '원맨쇼'는 마지막 회에서 17.3%(닐슨 코리아·전국 기준)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로 보답받았다.

▶안방극장 휘어잡은 박신양...KBS 월화극 부진 탈출= 박신양은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연기를 보여 줬다. 그 덕분에 1년 넘게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KBS 월화극은 부진의 늪에서 탈출했다. 드라마는 장장한 출연진을 내세운 SBS TV 사극 '대박'도 곧 따라잡고 지상파 월화극 1위로 올라섰다.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한 장면.

▶맨주먹 변호사의 활약에 대리만족=라마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악을 무너트린' 조들호의 활약으로 동쾌함을 선사했다. 드라마는 사법권력과 정치, 경제권력의 유착을 고발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에 에 둘러 꼬집었다. 거약 척결을 부르짖던 검사 자신이 거약이 되는 모습은 최근 불거진 일련의 법조 비리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김갑수 열연도 호평...애청자, 시즌2

제작 요구도=드라마 한계도 뚜렷했다. 조들호가 부정의에 대항하고, 악의 세력이 이를 짓밟고, 조들호가 예상치 못한 카드로 '울릉도 호박엿을 먹이는'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유 기성은 떨어졌다.

무계중심이 박신양에게 현격히 기울면서 여주인공 이은조 변호사 역의 강소라는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권력유에 눈먼 검사장 신영일로 등장한 김갑수의 연기가 더 돋보였다.

드라마 시청률이 15%를 뛰어넘으면서 4회 연장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박신양이 영화 촬영 일정을 이유로 고사하면서 무산됐다. 애청자들 사이에서는 시즌2 제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네변호사'가 떠난 자리에는 강예원 주연의 4부작 '백희가 돌아왔다'가 6일부터 방송된다.

배우 한혜진 육아예능 MC로 컴백

SBS '애미룩'서 신동엽과 호흡

축구선수 기성용과 결혼한 뒤 방송을 떠났던 배우 한혜진이 3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이달 말 방송되는 SBS TV 파일럿(시범제작) 육아 예능 프로그램 '애미(愛美)룩'을 통해서다.

이 프로그램의 홍보사덕터독은 1일 "신동엽과 한혜진이 이달 말 방송되는 SBS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다시 쓰는 육아일기-애미룩'의 MC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혜진은 2013년 기성용과 결혼한 뒤 '힐링캠프'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해 딸을 낳았다.



한혜진

신동엽

제작진은 "신동엽과 한혜진은 연예계에서 입담과 진행에 있어서는 놓을 수 없는 대표 MC"라며 "애리하고 날카롭게 출연자들의 마음을 읽으면서도 편안한 진행으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KBS 1 | KBS 2 | MBC | SBS | OBS | EBS |
|----|--|--|---|--|--|---|
| 5 |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픽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 5:00 튠튼생활채널 5:05 영상앨범 산 5:35 안녕 우리말 5:40 건강혁명 6:00 아유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5:00 MBC 뉴스 5:10 건강플러스 6: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7: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 5:00 SBS 뉴스 5:10 굿모닝 510 6:00 모닝와이드 <-1-2부-> | 6:00 리얼 대담형 <백 투 더 네이처> 6:55 OBS 전격인터뷰 7:05 독특한 연예 뉴스 7:45 OBS 뉴스 | 5:00 EBS 생활 영어 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6:10 세계의 눈 7:00 지파티스 30 꼬마버스 타요 45 뽀롱뽀롱 뽀로로 |
| 8 |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9:40 여유 만만 |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 8: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10 좋은 아침 | 8:10 경인 불 8:45 사람.산 9:45 OBS 뉴스 | 8:00 당동명 유치원 45 방귀대장 뽀롱이 9:00 곰디와 친구들 40 달라치요 |
| 10 |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11:50 안녕 우리말 | 10:40 지구촌 뉴스 11:00 출발드림팀 시즌2 | 11: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10회-> |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 경제 11:00 생활의 달인 | 10:05 드라마 극장 <디 데이> 11:15 남도의 보물 100선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 10:30 한국기행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마기행 |
| 12 | 12:00 KBS 뉴스 1:00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1:05 KBS 네트워크 특선 보물섬 1:55 별별가족 | 12:0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 12:00 MBC 정오 뉴스 12: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1:05 2016 MBC 특별생방송 힘내라! 중소 기UP | 12:00 SBS 뉴스 12:50 자기야-백년소남 | 12:05 여영차 바다野 1:05 공서영의 특별한 오늘 | 12:00 EBS 정오 뉴스 10 통일길 45 연중기획-미래를 여는 교육 1: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
| 2 | 2:00 가요시대 3:00 KBS 스페셜 3:55 튠튼생활채널 | 2:00 KBS 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3: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30 TV 유치원 | 2:20 텔레몬스터 2: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2:55 텔레몬스터 3:00 MBC 뉴스 3:10 헬로키즈 싸이걸스 3:55 파워베를 와치카 | 2:00 TV 동물농장 3:00 3시, 뉴스브라링 | 2:05 꾸러기 TV 3:00 행복 부동산 연구소 3:45 2016 동요 콘서트 | 2:00 코요태 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0 모피와 친구들 3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
| 4 | 4:00 4시 뉴스집중 5:00 KBS 뉴스 5:30 동물의 세계 | 4:00 여유만만 5:00 안녕! 주말개발 5:30 티빙메가드W | 4:25 MBC 일일 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다> 5:00 MBC 이브닝 뉴스 | 4:30 고향이 보인다 5:00 꼬마해녀 몽니와 해녀특공대 5:30 SBS 뉴스퍼레이드 |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 극장 <디 데이> | 4:00 곰디와 친구들 45 당동명 유치원 5:30 꼬마버스 타요 45 뽀롱뽀롱 뽀로로 |
| 6 |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5 한국인의 밥상 | 6:00 2TV 생생정보 7:50 4개국 율령픽 국가대표 축구대회 <대한민국: 나이지리아> |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다시 시작해> 7:55 MBC 뉴스데스크 | 6:05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 6:55 위대한 유산 7:05 경인 불 7:45 OBS 뉴스 M | 6: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7: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30 EBS 뉴스 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
| 8 | 8:25 일일 연속극 <별난가족> 9:00 KBS 뉴스9 | 8:55 MBC 일일 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다> 9:30 리얼스토리 논 | 8:55 MBC 일일 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다> 9:30 리얼스토리 논 | 8:00 SBS 8뉴스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 8:35 오늘의 월드 뉴스 9:05 독특한 연예뉴스 9:50 와이드 ASIA <맛있는 중국> | 8:40 다큐 오늘 50 세계대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
| 10 | 10:00 KBS 스페셜 10:55 숲터 11:00 KBS 뉴스라인 11:40 특집다큐 행복 100세,건강한 선택 | 10:00 수목드라마 <마스터-국주의 신> 11:10 해피 투게더 | 10: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 로맨스> 11:10 능력자들 | 10:00 드라마 스페셜 <만따라> 11:10 자기야-백년소남 | 10:45 OBS 뉴스라인 11:05 닥터's 건강의 정석 | 10:45 다문화 고부열전 11:35 글로벌 가족정착기 <-1-2-> |
| 12 | 12:30 특집 대한민국 황의 힘 1:20 생활의 발견 2:10 다큐 공감 3:05 세계는 지금 스페셜 | 12: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0 콘서트 7080 | 12:30 MBC 뉴스 12:5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1:05 아시아 프리즘 아름다운 비밀 1:55 문화 사색 | 12:30 나이트 라인 1:00 풋볼 매거진 골! 2:00 문화가중계 | 12:05 꿈꾸는 U 1:05 행복 부동산 연구소 1:50 남도의 보물 100선 |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

종합편성채널·케이블

| 종합편성채널 | 드라마 | 영화 |
|---|---|---|
| ◇ JTBC 07:30 JTBC NEWS 아침 & 10:10 아는 형님 14:30 JTBC 뉴스 현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9:55 JTBC 뉴스로 22:50 썰전 | ◇ KBS드라마 08:20 태양의 후예 11:00 천상의 약속 13:00 슈퍼맨이 돌아왔다 14:30 열차는 고수도치 15:40 내 마음의 꽃비 21:00 아기가 다섯 | ◇ OCN 08:00 CSI 시즌15 12:10 펄피어 탐정 13:50 미쓰와이프 16:20 트론:새로운 시작 18:50 잭 더 자이언트 킬러 21:00 다크 나이트 |
| ◇ TV조선 07:2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09:40 김광일의 신통방통 14:30 윤슬기의 시사Q 17:30 이슈분석 20:45 TV조선 뉴스쇼 '판' 23:00 연애가 뭐길래 | ◇ MBC드라마넷 11:00 가화만사성 13:40 옥중화 16:20 좋은 사람 17:40 다시 시작해 19:00 라디오스타 22:00 복면가왕 | ◇ 채널CGV 09:00 나의 절친 악당들 11:00 컬러풀 웨딩스 13:00 헐크 15:00 블스톤 17:30 슈퍼맨 리턴즈 22:00 친절한 금자씨 |
| ◇ 채널A 0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0:20 시사 인사이드 14:30 직언직설 16:00 레드난마 19:20 채널A 종합뉴스 23: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 ◇ SBS플러스 08:30 그레, 그러가야 11:20 마녀의 성 12:50 내 사위의 여자 14:20 미녀 공심이 18:30 백종원의 3대천왕 20:20 동상영의 랜칭아 | ◇ 스크린 12:00 워터드 14:00 왕좌의 게임 6 15:00 블스톤 17:30 슈퍼맨 리턴즈 22:00 친절한 금자씨 |
| 연예·오락 | 스포츠 | 뉴스 |
| ◇ Mnet 09:50 M morning 14:20 Dance or Band 17:10 Daily Music Talk 18:00 M COUNTDOWN 21:20 Live on M 23:00 음악의 신 2 | ◇ KBS N 스포츠 10:00 2016 리우올림픽 여자배구 세계최종예선 H/L 15:30 우리동네 예체능 18:20 2016 KBO 리그 <삼성:롯데, 고척> 22:00 I LOVE 베이스볼 시즌8 | ◇ 연합뉴스TV 08:00 라이브 투데이 09:50 원현호의 뉴스포커스 12:40 뉴스현장 16:45 뉴스워치 20:50 뉴스 Review 22:50 투나잇 23 |
| ◇ 코미디TV 07:35 룡가대표 11:55 비정상회담 16:00 백종원의 3대천왕 17:40 무한도전 19:15 맛있는 녀석들 21:50 코미디 빅리그 | ◇ MBC 스포츠 플러스 11:00 2016 메이저리그 <시애틀 vs 샌디에이고> 18:00 베이스볼 NOW 17:40 2016 KBO 리그 <KIA vs LG, 잠실> 22:00 베이스볼 투나잇 | ◇ YTN 08:00 이슈 오늘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호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
| ◇ tvN 07:10 응답하라 1988 09:10 예림이네 만물트러 12:40 또 오해영 19:20 쉐클맨그 21:40 옥수수제자 23:00 아버지와 나 | ◇ SBS 스포츠 15:30 제이미 바다 스페셜 16:00 2016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하이라이트 18:15 2016 KBO 리그 <KT:롯데, 사직> 21:50 2016 베이스볼S | ◇ NIB 남인천방송(채널 4) 08:30 네트워크 인천 12:30 미추홀생활정보뉴스 13:00 남인천 굿샷 15:30 2016 시청자 세상 19:00 NIB뉴스 20:00 TV건강과 생활 |

신재현 대표

오늘의 운세

(검색창:수원장(하정민스))
靑龍山人 ☎010-5393-0338

| | | | |
|---|--|---|--|
| <p>36년생 손자, 손녀하고 놀아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48년생 명예와 권위욕이 강해진다. 60년생 상대를 존중하라. 72년생 노련한 결실은 적으나 마음은 편하다. 84년생 이사, 여행, 외출 모두 불길.</p> | <p>39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원하는 일 마음껏 펼쳐도 좋다. 51년생 일이 부진하여 속 태우겠다. 63년생 기발한 발상은 호려이 적다. 75년생 개인보다 단체로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87년생 한 가지에 집중하라.</p> | <p>42년생 현실을 떠나 꿈을 꾸다. 54년생 자식과의 불화를 조심하라. 66년생 변칙적인 이성관계가 생길 수 있다. 78년생 화려한 연변술과 중간 역할이 성과를 보는 날이다. 90년생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 성과가 있었다.</p> | <p>45년생 스스로 자중하며 진행하라. 57년생 건강 주의할 것. 69년생 오늘은 말만 잘하면 천 년 빛도 갈을 수 있는 날. 81년생 저녁에 늦은 귀는 안 좋을 수 있다. 93년생 부와 명예가 따른다.</p> |
| <p>37년생 생각만으로 일이 되지는 않는다. 49년생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가질 것. 61년생 심리적 갈등이 심하니 집안에 있는 것이 좋다. 73년생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85년생 남의 말을 믿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p> | <p>40년생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도 가져보는 것이 건강에 좋다. 52년생 미심쩍다면 반드시 짐과 넘어갈 것. 64년생 말을 아껴야 실수가 없겠다. 76년생 밀가루 음식을 피하라. 88년생 소비는 계획적으로 할 것.</p> | <p>43년생 건강이 좋아지고 돈이 생길 수 있다. 55년생 다소 위험성이 있어도 큰돈 될 수 있는 일이 보인다. 67년생 친구나 동료들과 어울려 다닐 일이 생긴다. 79년생 부지런히 움직여야 작은 이익이라도 얻겠다. 91년생 차분한 하루 보낼 것.</p> | <p>46년생 희식자리 참가하면 즐거운 일을 경험하겠다. 58년생 이런 저런 이유로 귀찮던 돈 받기 힘들다. 70년생 하던 일을 오전에 끝내면 성과 좋다. 82년생 가능하면 명분과 원칙대로 할 것. 94년생 친구와 의논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p> |
| <p>38년생 고령관에서 벗어나야 발전할 수 있겠다. 50년생 학문과 진리를 탐구해 교육문화에 힘쓴다. 62년생 품위유지에 신경 쓸 것. 74년생 고만스런 일이 오히려 해결된다. 86년생 이것저것 챙길 수 있는 게 많다.</p> | <p>41년생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53년생 결모습만 보고 결정하지 말 것. 65년생 주식투자는 좋다. 77년생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 89년생 신뢰하는 사람 외에는 같이 일을 도와주지 말 것.</p> | <p>44년생 인맥 만들기에 공을 들일 것. 56년생 선배나 친구가 소용한사람 소개시켜 주겠다. 68년생 조심으로 돌아갈 것. 80년생 과거 속에 미래가 잘 보이게 된다. 92년생 애인이나 친구를 만나면 뜻깊은 만남이 될 듯.</p> | <p>47년생 모험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할 것. 59년생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71년생 쉬는 게 상책이다. 83년생 알방적 통보는 자제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칠 것. 95년생 스타일에 신경 쓸 것.</p> |

아름다운 도로!
밝은 도로, 안전한 도로!
새 시대의 도로를 만들어 갑니다

코스모스환보의 태양광에너지 기술은 깨끗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입니다

CosmosHuanbo
코스모스환보

◎ 태양광 정전등의 원리
제품마다 장착되어 있는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며, 어두워지면 광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점등됩니다.

◎ 기대효과
I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II 전기배선이 필요없어 시공비가 거의 안듭니다. III 설치가 용이하며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입니다. IV 아름다운 조명으로 조경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V 상시 불이 들어오므로 방범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 부천대우테크노파크 A동 402호
TEL. 032)670-899 8(826 8) FAX. 670-8368
E-mail. mompopo555@hotmail.com

자치플라자

이우인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상승을 기대하며



기호군 기획감사실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온도차가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수(稅收)가 많은 도시지역 지자체는 정부안 철회를 주장하고, 재정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지자체들은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재정력이 좋은 시·군의 재원을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분배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고,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시·군)에 나눠 주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찬반 의견의 쟁점은 재정 형편이 양호해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조항을 폐지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이

바뀐에 따라 지자체에 어떤 여파가 미치느냐가 핵심이다.

우리의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재정 조정 기능과 재원 보장 기능이 있다.

재정 조정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 집권 방식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 왔던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부문 간, 계층 간, 지역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실시된 지 21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재정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부의부빈역빈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개혁안을 내놨다.

현행 제도인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도 내의 시·군 간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이 교부금은 인구수(50%), 도세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바탕으로 교부해 오혀려차 별을 초래하고 있다.

배분기준 중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나

돼 농어촌지역과 인구가 적은 시·군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이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재원 조정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이 정당한 액수의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10%)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는(10%)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높여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방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비, 상하수도사업, 농어촌소득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

어설픈 1단

아버지는 당시 날던 새가 알아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공수부대 출신이다. 월남 전 파병을 다녀온 참전용사. 게다가 태권도 교관까지 하셨다. 공인 5단. 시합말로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태권도를 익혔다. 한겨울 새벽 산에 끌려 올라가 경관을 즐겼었다. 여러 차례 승급심사를 거쳐 드디어 1단 공인단증을 받았다.

청룡(成龍) 주연 영화 '취권'이 유행하던 시절, 대세를 따라 쿡후로 눈을 돌렸다. 과시욕에 불타 1단 단증을 따자마자

이내 합기도 도장으로 향했다. 거기서도 1단. 한중일 3국의 무술을 섭렵했다.

심신 수양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기고만장하던 난 드디어 입자를 만났다. 길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민족의 살길인 양 과감히 먼저 주먹을 날렸다. 이런 젠장, 잘생긴 내 얼굴에 먼저 쏘인 상대의 주먹. 그날 난 죽사발이 되도록 얻어터졌다.

내 경험에 따르면 1단은 마치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경지에 이른 양 착각해 경거망동하기 쉬운 단계다. 뿐만 아니라 실증을 느껴 종목을 바꾸거나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끔 내게 "직장을 때려치우고 기자나 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도, 썩어빠진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대의도 아니다. 단지 자신의 일에 실증을 느낀다는 두부먹다 어금니 부러질 소리를 무심코 내뱉는다. 설익은 1단들이다.

난 글로 먹고사는 직업을 가졌다. 14년 차 기자지만 아직도 역사에 같이 남을 빛나는 기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긴다. 글솜씨가 매일 밤새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쉽게 느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자들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각성하게 할 살아있는 기사를 쓰는 경지에 오르려고 말이다.

그놈의 '기자나'로 표현하는 설익은 그대여, 아십니까? 많은 기자들이 머리칼을 쥐고 흔들며 신고보다 심하다는 글쓰기의 고통을 매일 견디고 있다는 걸.

<안성=한기진 기자>

처음은 언제나 설렘이다

문화칼럼

김순희



수필가

약속장소에 갔을 때 수미와 금자는 벌써 와 있었다. 사회초년생이 된 후 셋이서 처음 함께 하는 휴일이였다. 만나기 일주일 전, 무엇을 할까 전화로 의논했다. 교외로 소풍을 갈까, 고궁 나들이를 할까, 영화를 볼까. 결정은 빨랐다. 나이트클럽, 그레 고거야. 셋 중 누구도 가 본 적이 없었다. 어디에서 만날까. 수미의 집은 독산동이었고 금자는 신성동, 나는 화곡동에 살고 있었다. 종로와 영등포 중 우리는 영등포를 택했다.

수미의 앞머리는 한껏 부풀려져 있었다. 헤어스프레이를 어찌나 많이 뿌렸는지 한 울도 흐트러짐 없이 꽃꽂했다. 스타킹이 박힌 보라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반쳐 입은 모습이 은행나무처럼 늘씬했다. 그녀가 하면 금색에 가까운 노란색 블라우스와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은 금자는 역시 금자다웠다. 두 친구는 하늘색 플레어 치마와 연분홍 꽃무늬 블라우스 차림의 내 모습을 훑으며 눈을 흘겼다. "그게 뭐냐, 나물 캐러 가냐?"

도시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가는 두 친구와는 다르게 나는 몇 걸음 뒤쳐져 있었

다. 뭐가 기뻐진 셋의 조합이었지만 우리는 그 조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곧 마주하게 될 나이트클럽의 현란한 분위기에 도취돼 친구들의 옷 핀잔은 금세 사라졌다.

유흥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가슴은 콩닥거리고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처음을 들리지 않으려고 수다를 멈추지 않았다. 유흥가는 예상 외로 조용했다. 어느 나이트클럽도 문을 연 곳은 없었다. 이른 저녁시간이어서 그럴 거라며 좀 더 거리 구경을 하다가 들어가기로 했다.

술을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TV에서 본 대로라면 번쩍번쩍해야 할 골목이었지만 웬일인지 썰렁했다. 우리 또래가 많이 간다는 나이트클럽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제2의 장소로 알아뒀던 맛은편에 있는 업소도 닫혀 있었다. 하다못해 올드한 팝송만 틀어 줘서 인기 없다는 곳 또한 마찬가지로였다. 무슨 일일까. 영등포 유흥업소가 단체로 파업이라도 한단 말인가.

어둠이 우리의 수다를 덮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새로 생성된 긴장이 설렘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벗어날 때까지 이윽을 알지 못했다. 또한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다. 산골에서 함께 따라 온 셋의 친구, 공통 손티를 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깐 사이에 두 가지 감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날은 현충일이였다.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일 년에 단 한 번 모든 유흥업소가 문을 닫는 날

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스무 살이었다. 문 닫힌 유흥가 골목을 서성이던 우리들 입에서 간간히 재채기가 터졌다. 저 멀리 다리 건너 여의도광장에서 날아온 최루탄 가스는 유흥가 골목까지 스며들었다.

그 매캐한 연기에 비장하게 파묻히던 함성은 얼마 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6·29선언을 이끌어 냈지만 우리에게 들리던 것은 Joy의 Touch by touch였다. 발매한 지 2년이 된 팝송이었던, 그 인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전 세계 젊은이들을 춤판으로 끌어들이던 그 리듬에 우리도 편승하고 싶었다. 한껏 부풀린 수미의 앞머리도, 금자의 금색 블라우스도, 내 하늘색 치마도 모두가 터치 바이 터치를 영접하기 위한 예의였다. 비록 우리가 차린 예의는 어설프었지만, 처음이었다.

유월, 여름이 시작됐다. 은유와 비유가 충분한 초여름, 풋풋한 생기로 가득하다. 여기저기 여름이 산란해 놓은 처음들이 자두알처럼 곱어지고 있다. 그 처음을 맞이하러 발을 내딛는다.

애써 찾아야 만날 수 있는 처음도 있고, 우연히 발견되는 처음도 있고, 문득 깨닫게 되는 처음도 있다. 어떤 것이든 처음은 언제나 설렘이다.

현충일에 나이트클럽을 기웃거리던 작은 일탈을 굳이 부끄러워 하진 않았다. 스무 살 우리들이 맞이했던 그 어설프은 처음이 쌓이고 쌓여 진정한 삶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호일보 kioilbo.co.kr

등록번호 인민2100001 1988년 7월 20일 창간

| | |
|---|---|
|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준영 | |
|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산빌딩 9층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기아자동차 빌딩 4층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건축 3층 |
| 구독신청 032-761-0007 판매국 032-761-0013 광고문의 032-761-0002 | 편집국 팩스 032-761-0011 정정부 032-761-0003 경제부 032-761-0004 사회부 032-761-0005 문화·체육부 032-761-0005 |
| 지국 전 화 번 호 김 단 032-563-0022 계 양 032-547-5947 남 구 032-882-2547 남 동 032-421-1966 동 구 032-764-2775 부 평 032-526-9400 석 남 032-576-4191 송 도 032-831-0797 연 수 032-811-6911 연 인 032-887-7355 연 회 032-561-4189 | 영 중 032-743-2990 강 화 010-3330-5204 가 평 031-582-0478 고 양 031-962-5360 인양·관천 010-6354-3259 광 명 02-2688-3239 광 주 010-5204-3470 구 리 031-511-4434 군포·의왕 031-394-0446 김 포 031-997-3030 남양주 031-511-4434 |
| 동두천 031-865-2557 부 천 010-5356-8211 서 울 02-313-5962 성 남 031-757-8948 수 원 011-242-6004 시 흥 010-3218-8724 안 산 010-5313-5329 안 성 031-671-1277 양 주 031-845-4200 양 평 010-8916-2106 여 주 031-885-3627 연 천 031-834-1307 | 오 산 010-9274-3486 신 갈 031-285-2283 차 인 031-333-1112 의정부 031-845-4200 이 천 031-634-3312 파 주 031-941-4513 평택 031-653-3132 포 천 031-535-5806 화 성 010-9274-3442 |

기호한자(畿湖漢字)

無財七施(무재칠시)
無 없을 무/財 재물 재/七 일곱 칠/施 베풀 시

불교에서는 재물 없이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를 무재칠시(無財七施)라고 한다. 첫 번째는 안시(眼施)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화안염색시(和顔悅色施)다. 미소 띤 얼굴로 모든 이를 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언사시(言辭施)다. 공손하고 의정부 031-845-4200

몸으로 베풀 수 있는 보시행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심시(心施)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상좌시(床座施)다. 타인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방사시(房舍施)다. 타인을 자신의 방에 재워 주는 것이다.

<鹿鳴>

www.softfind.co.kr

CyberLink베스트셀러 미디어 플레이어
PowerDVD 16 출시
World's No.1 Movie&Media player

- 대화면에 최적화 된 기능 - 대화면 감상을 위한 품질 향상, 그리고 TV 모드까지
- 미디어 무선 스트리밍 - 애플 TV, 크롬캐스트 등의 기기와 호환, 무선으로 대화면 스트리밍
- 업그레이드 된 리모콘어플, PowerDVD Remote - TV, 프로젝터로콘텐츠 감상 시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리모콘어플
- 가벼워진 프로그램 - PC의 소스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최적화 된 프로그램
- 4K, 블루레이, 120/240 fps 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를 가장 부드럽게 재생하는 플레이어

CyberLink 한국총판 (주) 엘투스
-mail : sales@L2C.co.kr
교육용/상업용/공공기관용 라이선스 문의
-Tel : 031-717-0961
-Fax : 031-717-61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11-15 301호(정자동, 봉우빌딩)
TEL.031-717-0961 FAX.031-717-6103 MAIL.sales@l2c.co.kr

따져볼수록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3천만원대로 시작하는
수익형 소형 테라스 오피스텔

운양역 헤리움 투자체크 포인트

| | | | |
|----------------|---|-------------------------------------|--|
| 입지 프리미엄 | 운양역 초역세권 김포도시철도 운양역 도보 1분(2018년 개통) | 사통팔달 교통망 서울 30분대 쾌속 출퇴근 | 한강신도시 핵심 입지 한강신도시 내 최고입지 운양지구 위치 |
| 상품 프리미엄 | 테라스 오피스텔 약 80세대 이상 테라스 오피스텔로 구성 | 한강조망 오피스텔 11층 높이로 한강조망 가능 | 우수한 상품성 타현장에서 검증된 힘찬건설의 우수한 상품구성 |
| 투자 프리미엄 | 수익형 소형오피스텔 전용 6.8평형의 수익형 오피스텔 | 합리적인 분양가 1억원 초반대 저렴한 분양가 | 높은 수익성 김포시 오피스텔 약 7%대 높은 수익률 기록 |

김윤식의 인천 만보(漫步)



시인/인천문화재단대표 이사

강원도 산골 사람도, 또 북쪽에 가계(家系)를 둔 월남(越南) 자손도 아닌데 유난히 냉면을 좋아한다. 여름에는 물론이거니와 한겨울에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달달 떨어 냉면을 즐긴다. 이러저러 심정이 답답했다가도 이 음식을 한 그릇 하고 나면 씻은 듯이 말끔해진다. 그런데 정통 명물 냉면집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다가 인천 냉면의 명줄이 아주 끊어지는 것이나 아닌지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냉면은 평양이 원조라고 하지만 ‘인천 것’을 못 따랐다. <중략> 내동 내리에배당 증충대 아래와 그 맛은쪽 평양관 언덕 쪽은 인력거꾼도 가기가 힘이 들어 타던 사람이 미안해서 내려 건넌 길이였다. 이곳에 인천 냉면의 원조가 여러 집 있었다. 지금도 간혹 보이지만, 색종이로 등 같은 것을 때 달았었다. 국수들이 나무통이고, 긴 방아 자루 같은데 사람이 드러누워 증충대를 거꾸로 내려가듯 발로 틀을 내리눌러 국수를 짜냈다. 갖은 고

김필수의 자동차세상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이 주목되며 경유차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유버스는 물론이고 트럭과 일반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경유차다. 유럽은 경유차가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늘고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도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정부는 경유값을 인상해야 국민들이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아예 경유차에 대한 긍정적인 소리라도 나오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필자는 최근 더욱 경유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전체를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경유차가 그렇게 나쁜가? 경유차는 연비와 출

기양념을 넣어서 한 그릇에 5전을 받았다. 10전, 15전, 20전 이렇게 올라 갔으나 인천 냉면을 서울 사람들이 더 많이 사 먹었다.

담동에서정옥(寺町屋)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이곳으로 많이 먹으러 왔다. 표관(鰯館)에서 활동사진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이 집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고, 주시시장에서도 장거리 전화를 걸어 일부러 인천 냉면을 주문했다. 전화를 받으면 곧 주문한 수량대로 스무 그릇 이상이나 되는 것을 긴 목판에 싣고 자전거로 서울까지 배달하던 시절도 있었다. 서로 경쟁을 해서 경인 냉면 배달 자전거 경주대회 같은 느낌을 준 일도 있었다. 그 후 기자 편을 이용하여 대량 주문에 응하던 것은 자전거 배달로는 위험성과 신속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천석급』에 보이는 고일(高逸)선생의 기록이다.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선생이 연루인이었으니 대체로 사실일 것이다. 이 비슷한 이야기기는 신태범(愼兌範)박사의 저서 『개항 후의 인천 풍경』에도 나온다. “미두장을 중심으로 점심을 사먹는 인구가 부쩍 늘면서 냉면, 비빔밥, 장국밥 같은 비교적 고급인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가 탄생했다. 평양관

냉면

(용동), 경인관(용동), 신경관(경동), 사정옥(담동), 복영루(금곡동) 등이 번창했다. 주문받은 점심을 직접 현장에 배달도 했는데 값은 업소 내와 같은 20전이었다. 냉면대접을 뽐뽐이 여러 그릇 겹쳐 놓은 긴 목판을 어깨에 메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끌고 달리는 배달꾼의 멋있는 모습은 한 폭의 거리 풍물화이기도 했다.”

인천의 옛 본바닥 내동에서 태어난 까닭에 1950년대 집 근처에 있었던 냉면집들 풍경이 기억에 있다. 냉면집 입구에는 예외 없이 긴 장대 끝에 종 손으로 잡아 어깨에 얹은 채 자전거를 비스듬히 누이고 곡예하듯 다른 한 손으로 타던 배달꾼도 봤다.

아무튼 인천 냉면이 경인 간에 유명했던 것은 그 맛에 있었을 것이다. 맛이라면 면도 면이지만 먼저 육수 맛을 봐야 한다. 인천 냉면의 육수는 동치미 국물이 아닌 쇠뺀과 양지머리 등을 밤새 고아낸 ‘육수(肉水)’였다. 이것이 바로 ‘평양냉면이 인천 것을 못 따르’ 차별점이었던 것이다. 인천은 개항 이후 이른 시기에 소 도축장이 생긴다.

주로 외향선과 일본인 소비를 위한 것으로 스테이크용 살코기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산물은 조선사람 몫이었다. 이렇게 인천에는 육수를 만들 재료가 풍부했다. 그러니 냉면에 얹는 쇠고기 편육도 다른 곳보다 흔했고 보편적이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어업용 제빙공장이 여러 곳 생겨지면서 얼음이 흔한 이곳에서 겨울밤 밤잠을 매누었던 서도지방의 ‘매밀국수’를 손쉽게 여름음식으로 변모시켰을 것이다. “특히 당시로서는 귀물(貴物)이었던 얼음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이 신기했고, 사철음식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신 박사의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태어난 정통 인천 냉면이 아쉽게도 이제는 시내 경인식당과 평양옥에서 겨우 그 명맥을 잇고 있다. 근래에 흔한 백령냉면이나 웅진냉면, 사리원냉면은 ‘원 인천 것’과 면도 편육도 다르다. 화평동 세숫대야냉면은 더더욱 아니다. 입맛도 세월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이제 정통 인천 냉면의 흥왕은 다시없을 것 같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민참여보도사업의 일환입니다.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 속에서 선진국 대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 모두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미래도 없다. 100여 년 전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지신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꽃다운 청춘과 목숨을 바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유공자,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외세에 짓밟히고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며, 나라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다시 비운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6년이 되고 휴전 63년이 되는

하다. 말 그대로 휴전 상태인 현재진행형 전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대가 변화하고 세계가 변하고 있지만 동토의 땅 북한은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 선포하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성능 개량에 몰두한 채 여전히 적화야욕을 불태우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휴전 협정 이후 끊임없이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침략도발에 대해 국가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부름 앞에 과감하게 목숨을 던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분반아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한 안보의식 함양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시대적 사명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 경주를

경기도내 최근 10년간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가장 높았으며 2014년 이후 여자 실업률이 남자 실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도내 전체 실업자 수는 26만1천 명으로 2006년(19만4천 명) 대비 6만7천 명(34.5%) 증가했고, 도내 실업률은 3.9%로 전국보다 0.3%p 높았다 한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초에 청년대출자들이 대량으로 사회에 진출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구직활동 중에 있다. 여기에 기존의 미취업 졸업자까지 합하면 청년실업자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최근 조선·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황이 지속되자 사업장마다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그나마 건설 현장에 일자리가 있어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몫이 돼 더욱더 취업의 기회가 좁다. 산업은행이 중소

조선업, 건설업, 외항화물, 운송업 등 24개 업종을 취약산업으로 분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는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심각한 청년실업사태를 아는 지 모르는지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과 다름없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근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 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근로를 할 수 없으니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제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제35조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등은 허울 좋은 이름뿐인 규정들이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재삼 당부한다.

경유차의 마녀사냥식 몰이를 경계한다

력이 타 차종에 비해 높고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낮게 배출한다. 장점이 많은 만큼 활용도도 높다는 뜻이다. 특히 트럭이나 건설기계 등 출력이 높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필수적인 차량이다. 특히 우리의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문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이다. 물론 경유차가 중요한 배출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낡은 경유차가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세먼지의 주요인인 경유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에서 날아오는 경우, 도로와 타이어 및 브레이크 등 도로 바닥에서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대도시별로 미세먼지 원인이 다른 만큼 다양하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같이 경유차를 주범으로 몰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의 경유차 화두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한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지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됐고, 잦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른 대중들의 대안 마련, 대부분의 경유차가 실제 주행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과 다 배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몰리면서다. 유럽은 가장 중요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로의 구입을 지향한다.

자동차는 일반인에게는 10년을 사용하는 고가이면서도 애지중지하는 재산의 한 가치로 평가한다. 이러한 차량을 한번 구입하면 길게 사용하는 일반인의 특성을 고려해 확실한 친환경차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마녀사냥식의 몰아가기보다는 길게 보고 크게 보는 시각으로 냉정하게 장단점을 생 각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하고 친환경차의 범주에 있던 경유차가 지금은 가장 나쁜 오염원 투성이의 문제야로 전락하

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구입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경유값 인상, LEZ제도 도입, 환경개선부담금 부활, 조기 폐차 유도, 경유버스 제한 등 다양한 언급이 있으나 무엇보다 운행상의 친환경차인 센터비 정책 등으로 구입욕구를 친환경차로 늘리는 것이 길게 보는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향후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 가스를 약 37% 감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 만큼 가장 적절한 대상은 자동차로 올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경유차를 그때는 어떻게 볼지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것은 물려받고 자랑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자동차 환경 정책은 더욱 그렇다. 10~20년을 보면서 일관성과 설득력이 중요하다. 국민은 이러한 신뢰성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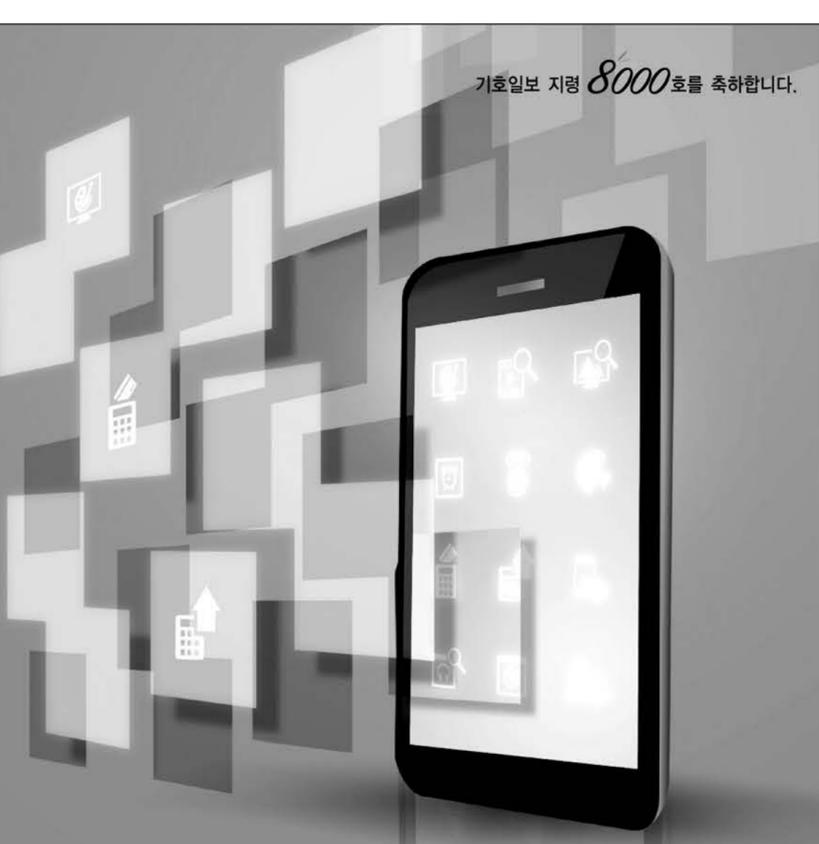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밝은 미래 사회를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 신속하고 다양한 양질의 정보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문으로 소임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태경종합건설



동인천서 탄생한 '졸면' 실수 아닌 노력의 결과

나라사랑 실천하기 딱 좋은 6월

용역문 길... 사라져가는 것들을 찾아서 <2> - 졸면

졸깃한 면발 시도 성공·분식 장려운동으로 전국화... 학교 인근 호황 경기 위축에 가계는 줄었지만 찾는 사람 여전... 누들로드 사업 활용을

'졸면' 탄생지가 인천이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졸면의 탄생 비화 역시 그렇다.

그런데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직원의 실수가 아닌 졸면은 노력과 연구의 결과다. 졸면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광신제면의 직원들이 똑똑 끊어지는 국수 면발에 '탄력'을 주려고 했고, 거듭된 노력 끝에 만든 것이 바로 졸면이다. 졸면 탄생 비화에는 '실수'가 더 극적이기는 하지만 연구와 노력의 결과가 더 납득할 만하다.

인천시 남구의 면류제조업 1호 등록업체인 삼성식품공업사에서 '졸면' 이전부터 그와 비슷한 면제품을 차이나타운에 납품했다는 주장도 있다. 호황을 타면서 수타면이 정적이던 당시 차이나타운의 작업방식에 기계면이 도입됐는데, 이 기계면이 맛당에 제 공급 졸면이 됐다는 주장이다.

어찌됐든 졸깃한 면에 양배추와 오이, 당근 등 채소를 얹고 매콤, 달콤, 새콤한

고추장 양념을 더해 비벼 먹는 '졸면'이 동인천에서 탄생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졸면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너무 질겨 '고무줄 국수'라고 외면받기도 했고, 구정 직원이 불량식품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던 졸면이 여고생이 즐겨 먹는 음식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졸면의 식감과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신포우리 만두의 노력이 크다. 1960년 말 시작한 정부의 분식 장려 운동도 졸면의 전국화를 이끈 배경이기도 하다.

쌀과 보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정부의 분식 장려 운동으로 학교 주변에는 분식집이 호황을 누렸다. 학교 밑 집 지역이었던 동인천의, 대학서점에서 흥예문까지 이어진 등·하굣길에도 맛나당을 비롯해 만복당, 풍미당, 명물당 등 분식집은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맛나당은 졸면으로, 풍미당은 국화빵과 우동으로, 명물당은 우동과 짬뽕으로, 대문문구는 DJ로 학생들을 맞았다.



동인천 지역 상권 위축으로 유명했던 흥예문길 분식집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신신분식(왼쪽)과 늘봄분식(오른쪽)이 졸면 원조 거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던 차에 1999년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은 이들 분식집에도 큰 타격을 줬다. 축원초와 인천여중·고의 이전도 영향을 줬다. 갈수록 위축된 상권 영향으로 이들 분식집 중 만복당이 2003년 6월 문을 닫았다. 장사가 안 돼 노래방이나 PC방 등으로 업종 전환을 꾀했으나 그마저도 절대정화구역 안에 가게가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근에 인천고등기술학교가 있어 그랬다. 교육법상 고등학교인 이 학교는 그러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성인이었던 터라 상인들이 이 지역의 절대정화구역 해제를 요구했다고 당시 신문 기사는 전하고 있다.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고와 학생 수 감소가 동인천지역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졸면 원조 맛나당도, 우동이 맛있었던 풍미당도, 꽤 인기 있던 분식집들이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하나둘 영업을 접었다. 지금은 신신분식과 늘봄분식 등이 졸면 원조거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도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 거기에 추억을 먹을 수 있어 그런 듯하다.

졸면을 둘러싼 풍성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누들로드에 활용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김주희 시민기자 juhee375@gmail.com

순국 선열 위한 기념일 되새기자 한글사용·우리나라 자랑도 함께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고민해 봤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을 다녀오고 나서 스스로 든 생각이 다. 독립기념관 여기저기를 관람하는 동안 선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 고통과 슬픔을 느껴면서도 오로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 선열들이 있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지금 나라사랑을 하기 위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한글사랑이다.

요즘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속어나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속어보다 좋은 우리말들이 또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찾아 좋은 우리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라사랑 실천의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에 대해 나라가 지정한 기념일을 찾아보는 것이다. '현충일'이 언제 지정됐으며, '삼일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이다.

기념일들을 알아보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기념일을 되새기며 집에 있는 태극기를 창문에 달아 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랑하기다. 우리나라에 대해 알기만 하면 나 외의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다.

나라 지키기는 혼자 힘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더 잘 실천할 수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통일이 문화의 차이로 인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점차 서로 적응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드는 군사비용 같은 전쟁에 대한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나라의 옛 문화들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엠펙션 시민기자 djagnltjq@naver.com

시민들 외출 주저하게 만드는 미세먼지, 현실적 대책 없나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들로 산으로 이른 피서를 떠나는 날들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창밖을 내다보면 한숨을 쉬며 외출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눈앞에 보일 정도로 뿌연 미세먼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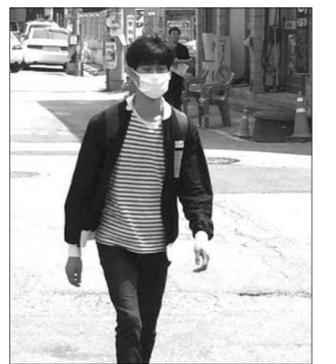
이 같은 미세먼지는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이며,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호흡을 통해 들어오면 기관지를 거쳐 각종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에 외출하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 매일 놀러가자고 하는데 혹시 나 하는 마음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모(29·여)씨는 아이와 함께 주말에 놀러가고 싶어도 미세먼지 걱정에 꼼짝을 못한다.

인천에서 과천까지 출퇴근하는 정모(28·여)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교통비 외에 매일매일 드는 비용이 생겼다.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밖에서 걸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 일회용 마스크를 꼭 휴대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속옷가게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류모(28·여)씨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미세먼지 주의가 발령된 지난 주말,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서울 명동 거리에 매대를 깔아놓고 장사를 하다 보니 하루종일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물건을 팔면서 마스크를 끼고 일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불안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지만 외출을 삼가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큰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리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선미 시민기자 smd37@naver.com

버스 노선 변경, 정류장 안전 공간 확보돼야

주안역 환승객들 차도까지 줄서 7월 2호선 개통과 연계 개선 희망

인천 버스노선 개편 이렇게

■ 환승정류장, 안전이 우선

필자는 20여 년 넘게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의 변화를 직접 체험해 왔다. 환승시스템 도입도 빨랐고, 실시간 버스 도착 알림 전광판이나 마을버스 활성화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실시되며 인천은 교통 선진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다.

인천시는 수인선 연장 개통에 이어 오는 7월 말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중복된 노선을 없애고, 여기저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굴곡 노선을 개선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신도심에 노선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동인천역이나 주안역·동암역 등 경인선 중심의 환승체

계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수인선,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등으로 확대해 복합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큰 폭의 변화로 인한 혼선도 예상되지만, 환승정류장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될 버스 노선을 살펴보니 원도심에 살고 있는 필자에게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손해라는 느낌이 먼저 정도는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노선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반가운 것은 매일 지나치는 주안역 환승정류장의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나는 버스 노선이 많은 주안역 남쪽 광장 근처에는 버스정류장도 여러 곳이 있다. 일반 시내버스가 정류하는 곳과 마을버스만 서는 곳, 그리고 몇몇 노선들만이 들어가는 역사 바로 앞의 환승정류장이다. 20여 년 전 마을버

스가 활성화되며 혼잡을 피해 마을버스 전용 정류장이 하나 더 생겨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후 이용객이 월등히 많은 노선 등 일부 노선의 버스가 환승정류장에 정차하게 됐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환승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수가 매우 많다. 특히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는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50명 이상 길게 줄을 선다. 그러다 보니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릴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줄을 설 자리도 부족할 정도다.

워낙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일부 노선은 암묵적으로 일정한 지점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이에 익숙해진 승객들은 위험이 도사린 자리를 따라 그 앞에 줄을 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차도에 길게 늘어선 줄은 다른 승객은 물론 버스의 통행을 가로막

기도 하면서, 차에 치일 수도 있는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승객이 많은 만큼 배차시간을 줄이든가, 안전하게 줄을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편리함을 앞서 안전을 우선시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버스 노선이 여러 개의 지하철역과 연계되면 자연스레 이런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고 해도 그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이 아닐까 싶다. 안전이 위협받는 편리함이라면 그것은 편안함만 있고 이로운 것은 진정한 의미의 편리가 아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사업에서도 단순히 노선만 변경하고 신설하는 것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안전과 이로운이 우선시 되는 교통안전 방안들이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다.

유달샘 시민기자 with0610@hanmail.net

냉난방 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하세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남양주시청 의왕시청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수명이 오래가는 명품 고급방수”

용인시청

특수방수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영등포경찰서

2014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주요실적

- SAMSUNG 삼성전지지역
- 인천소방안전학교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 경인고등학교
- 송전중학교
- 인천부민초등학교
- 용진부정신병조방
- 하남소방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proof01> www.IPALG.co.kr

| | | | | | | |
|----------------------|---------------------|------------------|------------------|------------------|-------------------|-------------------|
| 인천·부천 (032)471-6020 | 안양·안산 (031)422-1237 | 과천 (02)502-0494 | 안성 (031)676-2885 | 구리 (031)567-5576 | 동두천 (031)861-5576 | 광주 (031)767-0470 |
| 남수원·화성 (031)233-8061 | 고양·일산 (031)907-6029 | 광명 (02)2625-7904 | 의왕 (031)241-6921 | 포천 (031)531-5567 | 김포 (031)907-6029 | 곤지암 (031)767-0470 |
| 북수원 (031)241-6920 | 의정부 (031)872-5576 | 성남 (031)733-4416 | 평택 (031)657-0423 | 양주 (031)842-5576 | 용인 (031)322-7751 | 가평 (033)243-1728 |
| 양평·용문 (031)771-7782 | 남양주 (031)594-4416 | 하남 (031)734-4417 | 오산 (031)372-0893 | 파주 (031)947-5576 | 이천 (031)636-7783 | 춘천 (033)241-8954 |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안전한 일터' 인증

1437일간 산업재해 발생 '0'건... 산업안전공단서 인증 박진세 소장 "현장 위험요소 주기적 제거 최선" 다짐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가 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4배수 달성 인증서를 받았다.

'무재해 4배수'는 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연평균 작업시간의 4배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1천437일 동안 승기사업소에서 산업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 받은 것이다.

인천환경공단은 그동안 다방면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8개 사업소 중 6개 사업소가 무재해 3배수 인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무재해 4배수 인증을 받은 승기사업소는 '안전점검의 날 시행점검', '현장작업 전 안전구조 제작' 등의 안전운동과 월 1회 정기 안전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승기사업소는 남구와 연수구, 남동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27만5천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로 각종 체육시설과 생태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승기사업소 박진세 소장은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장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무재해 5배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인사

부천시 | ◇승진 ▶6급 이순임 이현주 박종대 고선자 박찬미 박정옥 유지승 ▶세무 승영환 김태룡 ▶공업 조봉현 ▶시설 이호성 신수일 서태영 ▶사무운영 김용현

알림

▶(사)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제2회 행복나눔 프리마켓=4일(토) 오전 11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인천시 제61회 현충일 추념식=6일(월) 오전 9시 55분 수봉공원 현충탑.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 '연극인 합세덕과 인천 포럼'=7일(화) 오후 4시 문학시어터. ▶제361회 새얼아침대화=8일(수) 오전 7시 웨라튼그랜드 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 주현 KIET(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रो에 선 한국의 제조업' 주제강연.

부고

▶이군택(성남시 공보관)씨 부친상=1일 오전 9시 50분.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10-6226-1367



최윤기 통일그룹 이사장 가평에 20억 장학금 기부

김성기 가평군수는 1일 집무실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를 대신해 통일그룹 최윤기 이사장에게서 2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받았다.

김 군수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책체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이 장학금은 가평의 밝은 미래를 이룰 인재 양성과 교육도시 구현에 디딤돌은 물론 희망가평·행복가평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김진섭 기자 gsuim@khihoilbo.co.kr



인천 현대유비스병원 '개원 22주년 기념식' 개최

인천시 남구 현대유비스병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시간이 벌써 22년이 넘었다. 유비스병원은 1일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성호 병원장은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 감사패와 순급열쇠를 증정했다.

또 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료진과 임직원에게 공로상과 우수직원상, 친절직원상을 표창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병원장은 "생명존중, 사랑나눔의 병원 정신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어 병원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고객까지 창출을 위한 더욱 수준 높은 진료를 펼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의경 70명 머리 손질 봉사에 보람찬 가위질

베리헤어 미용숍, 기동단 '807 의경대'에 이발 재능봉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의무경찰대는 최근 베리헤어(성남시 야탑역)가 무료 재능봉사인 조발데이(이발) 행사를 펼쳤다고 1일 밝혔다.

베리헤어 미용숍 직원 10여 명은 행사 당일 부대를 방문해 대원 70여 명의 두발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역사회의 이발봉사로 매달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하는 대원들의 시간과 비용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동주 대원은 "두발은 짧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매번 번거롭고 비용 부담도 많았는데, 무료로 머리를 깎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베리헤어 미용숍은 매달 807의무경찰대 조발데이 행사에 무료 재능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c@khihoilbo.co.kr



인천에부선통합협회 주사무소 남향 이전 현판식

(사)인천에부선통합협회는 최근 주사무소를 인천남향으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박순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원들의 친목과 복리 증진,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에부선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회원들이 일선에서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중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변용택 세연 대표 인천세무고교에 장학금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변용택(세연) 대표가 인천세무고등학교에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세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CEO 강좌'에 강사로 나선 변 대표가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김중국 기자 kjk@khihoilbo.co.kr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 '청렴·윤리경영' 강연

(주)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는 1일 본부 직원과 상주 협력회사 직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윤리경영 사외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최석기 경성대학교 교수는 '조선시대 선비 정신에서 배우는 청렴 문화'라는 주제로 "청렴이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도 없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실천하는 행위로 치심(治心)과 수신(修身)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학빈 본부장은 "이번 인문특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중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올 여름도 시원하게 지내렴

SGI서울보증 강서본부, 신명보육원에 냉난방기 전달

SGI서울보증 강서본부 임직원은 최근 인천시 부평구 심정동 신명보육원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가족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없거나 사정이 있어 가족들이 양육하지 못하는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SGI서울보증 강서본부는 지난해와 올해 1천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구입해 전달했다.

SGI서울보증 직원들은 심사일반 후원금을 모아 매달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과 28일 장마철을 대비해 배수로 공사와 화단 정비 봉사활동을 벌이고 생필품, 간식 등을 구입해 나눠 주기도 했다.

SGI서울보증은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모든 임직원이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안재권 기자 aik@khihoilbo.co.kr



민주평통 고양시협 '고교생 역사·통일 골든벨 대회'

민주평통동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고양시청 체육관에서 '2016 민주평통 고양시 역사·통일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협의회가 마두 청소년수련관과 실시한 가운데 17개 고교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통일 의지 고취에 나서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서 행선고 이희연 학생과 일산동고 조윤호 학생이 공동 1위의 영예를 안아 통일상과 평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대회를 통해 선발된 학생 35명은 고양시 대표로 8일 열리는 도전 골든벨 경기도대회에 출전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한센인 5쌍 축복 속 결혼식

합동결혼에 경인여대 학생들 재능기부 등 도움 손길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고령의 한센인 5쌍이 경인여자대학교와 (사)한국한센총연합회의 도움으로 평생 소원인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달 31일 경인여대 20주년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들의 합동결혼식은 김현한 목사의 주례와 경인여대 부속유치원 아동들의 축하 공연,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장·박병철 국립소록도병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결혼식은 경인여대 웨딩플래너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예식장 장식과 야외촬영 등이 진행됐다. 김경일 기자 kik@khihoilbo.co.kr



인천시사회복지협, 연수보호센터 장애인 방문 봉사

인천시사회복지협회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봉사활동'이 눈길 끌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협동모금회 신청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이 사업은 평소 외출이 힘든 수요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사회복지협 소속 인천지역사회전문봉사단이 '연수보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대상자 21명과 함께 했다.

이날 활동은 장애인 대상자들의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크로마하프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과자도 얼굴콜라주 만들기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 김혜연 기자 khy@khihoilb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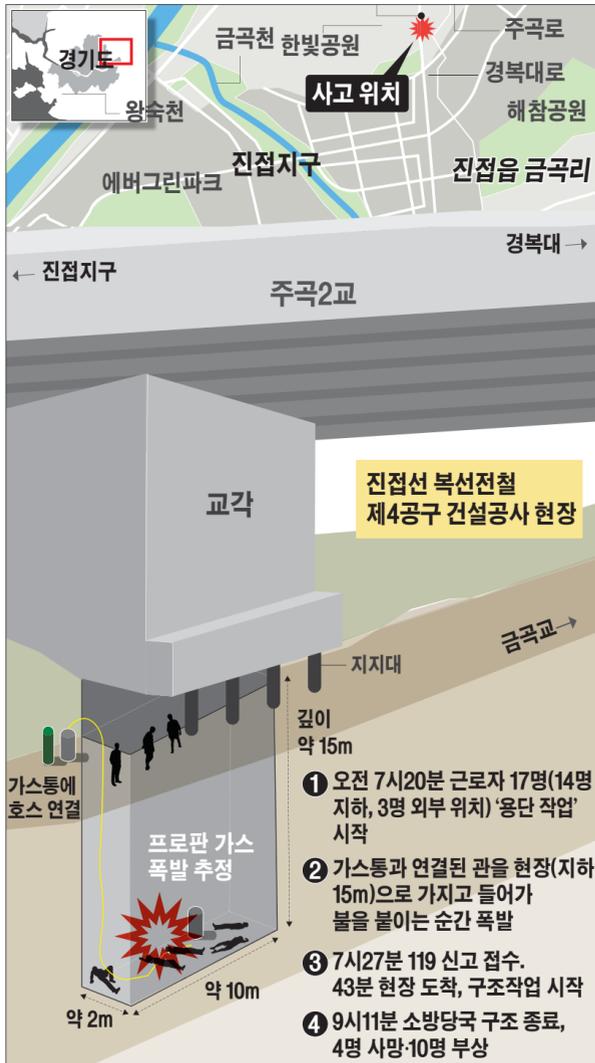
연천소방서 고대산에서 시민산악구조봉사대 발대

연천소방서는 1일 신서변 고대산 중앙광장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자 및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산악구조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산악사고 구급 및 구조활동을 본격 실시하게 됐다.

이 자리에는 봉사자 지원자 43명으로 구성된 시민산악구조봉사대를 주축으로 119비상구급함 사용법과 이를 이용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기초교육이 이뤄졌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산악구조봉사대는 등산객들의 산악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 활동은 물론, 각종 소방안전교육 훈련에도 적극 참여해 소방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연천=정동진 기자 dsc@khihoilbo.co.kr

남양주 붕괴사고 시간대별 상황



지하 15m서 튀어나온 철근 절단하려다 '핑'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구간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폭발에 의한 사고로 보고 공사관계자들을 불러 공사현장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4호선 연장구간 진접선 4공구 현장... LPG통·산소연결 호스 들고 투입 참변 부상 10명 중 3명 화상 심각 위독... 교량붕괴 위험 우려 안전 점검 특별 지시



구덩이에 차 있던 가스 터진 듯

▶ 사고 재구성=1일 오전 7시께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 시공사인 매일 ENC 소속인 근로자 서모(52)씨 등 12명이 집합했다. 이들은 이날 지하 15m 깊이에 위치한 작업 현장에서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려던 중 튀어나온 철근이 있어 이를 절단하는 등 용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근로자들은 지상에서 약 20분간 장비 점검과 안전체조, 작업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뒤 LGP통 및 산소통과 연결

된 고무호스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30분도 안 돼 지하에서 주변을 뒤쫓는 폭발음이 났다. 인근 1km까지 소리가 크게 나면서 119 소방당국엔 깜짝 놀란 시민들의 신고 수십 통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폭발 충격으로 외부로 튀겨져 나온 사망자 1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지하 15m 아래에 매몰된 3명의 시신을 모두 인양했다. 사망자들은 남양주 한양병원·현대병원 등 2곳으로 옮겨졌다. 인근 구리 한양대병원과 남양주 백병원 등 4개 병원에는 부상자 10명이 옮겨졌다. 이 중 3명은 화상이 심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 내 제 4공구다. 남양주 오남역~진접역 약 2.49km 구간을 연결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총 1천756억 원이 투입되며, 2014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약 15%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하청업체인 매일ENC 소속으로 철근공들과 작업보조인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상부에는 금곡리 금곡2교 교량이 설치돼 있다. 왕복 5차로 도로가 지나가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인해 교량 붕괴 위험이 우려되자 안전점검을 특별 지시했다. ▶ 사고 원인=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남양주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 60명을 배치했다. 수사본부는 가스통 밸브가 미리 열렸거나 가스관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 이미 구덩이에 차 있던 가스가 터진 것 등 3가지 가능성을 보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작업자들은 지상의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구덩이 15m 아래로 내려 용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불꽃을 내기 위해 호스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당시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시공사인 매일ENC 측의 현장안전 관리책임자는 지상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수사본부는 폭발 규모로 미뤄 며칠 전부터 계속 용단 작업을 한 만큼 호스에 불을 붙이는 순간 구덩이에 차 있던 프로판(LPG)가스가 터진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상자가 위독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별취재반>



1일 남양주시 진접을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양주=홍승남 기자 nam1432@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2 | 달뜨기 03:05
6월 2일(목) | 해질 19:48 | 달짐 16:22

| | | | | | |
|----|-------|----|-------|-----|-------|
| 고양 | 13/30 | 양주 | 13/29 | 가평 | 15/27 |
| 김포 | 16/28 | 서울 | 18/29 | 의정부 | 14/30 |
| 인천 | 17/26 | 수원 | 16/30 | 남양주 | 14/30 |
| | | | | 양평 | 15/31 |
| | | | | 이천 | 14/31 |

피곤한 몸 이끌고 "현장일 바쁘다"며 출근했는데...

곳곳서 오열... 비통한 민소

"사람이 죽었는데 적어도 그 이유는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온하던 6월의 첫날 아침, 갑작스러운 폭발사고로 순식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일 오후 3시 30분께 이날 폭발 사고로 숨진 작업자 3명이 안치된 남양

주 한양병원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유가족들은 고인의 빈소조차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 응급의료센터 보호자대기실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물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회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연락이 아닌 뉴스 또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인에게서 사고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회사, 경찰과 소방, 시청 등 관련 기관 어느 곳에서도 사고 경위조사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사고 상황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원래 우리가 직접 신원을 알아보고 언론을 통해서만 사고 소식

을 접해야 하는 것이냐"며 "빨리 신원을 확인하고 어떻게 사망했는지 직접 설명을 듣고 싶을 뿐인데 회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망자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다. 동생의 전화를 통해 사고 소식을 알게 됐다는 고(故) 윤모(62)씨의 아내 김모(61)씨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남편이 너무 피곤해하며 오늘은 쉬고 싶어했지만 현장일이 바쁘다며 결국 출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성격이 좋아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오열했다. 실제 숨진 윤 씨는 포천의 고속도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2주일 전에서야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으로 옮겨왔다. 김 씨와 함께 병원을 찾은 30대의 두 딸과 세 살배기 손자는 "불과 지난 주에 새 차를 장만했는데 4일밖에 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워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손자는 슬픈 광경에 울음을 터뜨려 주변을 숙연케 했다. <특별취재반>

불별더위 기승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음.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 분포.

| 바다날씨 (오전) | | | 강수확률 (%) | | |
|-----------|------|---------|----------|----|----|
| 종류 | 풍속 | 파고 | 지역 | 오전 | 오후 |
| 시해 서~북서 | 4~8 | 0.5~0.5 | 인천 | 0 | 0 |
| 남해 북동~동 | 6~11 | 0.5~1.5 | 수원 | 0 | 0 |
| 동해 북동~동 | 4~7 | 0.5~1.0 | 동두천 | 0 | 0 |
| | | | 이천 | 0 | 0 |
| | | | 양평 | 0 | 0 |
| | | | 강화 | 0 | 0 |

제공 Kweather www.630.co.kr

유람선, 도선 탑승시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 (시행일 2016. 1. 25.)

신·시·모도 장봉도 여행시 신분증 꼭 지참

탑승객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5조)

주민등록증
해우리
XXXXXX-XXXXXXX
OOO서 □□□구 △△△동
2016. 1. 25
□□□ 구청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학생증, 청소년증, 건강보험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확인 증명서
- 단, 미취학아동(유아)은 동반한 보호자(부모, 친족, 교사 등)의 신분확인으로 갈음

세종해운(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847번길 55 문의전화 ☎032)751-2211

인천 남동구청장 ‘불통’에 지역 업체들 ‘죽을 맛’

캠핑장 등록 거부하고 임시주차장 폐쇄 청소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 잇단 잡음 구청장 측 “적법한 절차로 추진” 해명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의 ‘불통행정’에 지역 업체들이 바람 잘 날 없다. 인천대공원 캠핑장 위탁업체는 지난해 등록을 안 해 주더니 올해는 주차장을 폐쇄<본보 6월 1일자 19면 보도>시켜 2년째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소 대행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로 어려움을 겪는데다 최근 늘어난 과태료 부과에, 일부 업체는 경찰 수사까지 받는 실정이다.

1일 남동구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은 지난해 구에서 야영장업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행정·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았다. 법률 자문료로 1천500여만 원을 지불했고, 항고 등 비용은 조만간 추가로 내야 한다.

2013년 문을 연 캠핑장은 초기 투자금이 6억 원 남짓 들어갔으며, 지난해 야영장업 등록 거부 사태로 3억 원가량의 영업손해를 본 것으로 캠핑장 측은 내다봤다. 이때문인지 지난해 5천여만 원의 임대료가 밀렸었다.

캠핑장 측은 지난해 30일부터 구에서 주차장을 폐쇄해 본격 캠핑철을 맞은 올해도 수익 연대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캠핑장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폐쇄는 지난해 각종 송사에 휘말리게 만든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며 “솔직히 손해배상 청구 등 장 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시에서 부탁해 소송을 걸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보복은 지역 업체 죽이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남동구 5개 권역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들도 죽을 맛인 건 마찬가지다. 기준보다 낮은 단가에 계약해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데다, 장 구청장이 추진해 선발한 공모직 직원(무기계약직)들의 재활용쓰레기 처리 업무까지 떠맡았다.

장 구청장은 올해부터 각 동 주민센터로 이관된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원활히 하겠다며 61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한 바 있다. 결국 A업체는 지난해 계약을 포기했다. B업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계약상 위반에 관한 사항’이라며 구청에 800만 원의 과태료가 지 물어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구는 청소 대행료를 줄이겠다며 공개입찰로 단가를 후려치더니 이 권역의 새 업체 계약은 다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입찰이 안 들어와서다. 기존 업체가 약 78%에서 낙찰된 것과 달리 이 업체는 99% 수준에서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나머지 4개 업체는 구에 87% 수준으로라도 올려줄 것을 요청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중재위원회가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장 구청장 측은 비서실을 통해 “캠핑장은 2008년께 썸베리 하기 전에는 매달도 심고 했던 곳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원상 복구하라고 한 것뿐이지 보복행정은 아니고, 청소업체가 직원 월급을 적게 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청소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ohoilbo.co.kr

검찰, 한국지엠 본사 압수수색... 상무 1명 체포

한국지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검찰 수사<본보 5월 11일자 19면 보도>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일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배임수해 혐의로 한국지엠노무관리팀 소속 A(57)상무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인사·구매·회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A상무가 노조 간부들과 짜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 주는 명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상무와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전 지부장 B(55)씨와 전 지부 간부 C(51)씨 등 노조 전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

다. B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상무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전 지부장 D(51)씨와 물품업체 대표 1명도 배임증제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D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후임으로 지부장이 된 B씨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한국지엠 전직 노조간부들의 배임행위 혐의로 인천검찰이 한국지엠 인천본사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1일, 검찰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돌연 사퇴한 노사부문 부사장이 노조 비리와 관련, 책임지고 물러난 것이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간부 1명을 체포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부문 부사장

은 건강이 좋지 않아 퇴임했는데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와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국내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lbo.co.kr

준공 1년도 안된 도로가 물 고이고 균열 ‘찍’

인천시 중구가 주민의 편리를 위해 개설한 지방도로가 마구잡이식 공사로 되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영종미개발지역 소2-5호선(중산동 돌곶재 일원) 도로와 관련해 올 1월 29일 중산동 1165의 1번지 발(전체 3천300㎡) 소유주 최모(59)씨가 구를 대상으로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소송을 냈다.

영종미개발지역 소2-5호선 도로는 총 사업비 82억 원이 투입돼 총길이 2천264m, 폭 6~11.5m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

됐고, 김홍섭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최씨는 2013년 7월 도로 개설 설계 당시 자신의 발 일부(1천320㎡)를 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담당 공무원이 나머지 발 일부로 빗물 등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배수관을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배수관을 설치한 바람에 빗물이 발로 유입하게 됐다며 배수관을 제거해 달라 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구에 빗물 등이 발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배수관에 흙을 덮어 보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구는 내부 논의를 통해 보수공사비 700만 원을 들여법원의 강제조정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근 주민들이 도로 부실공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불만을 쏟아내

고 있다.

도로 구간 곳곳의 가로등은 보도블록과 2cm가량의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바닥면을 불규칙적으로 포장한 탓에 물이 고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인 도로가 주민 불편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주민 김모(57)씨는 “도로 개설 전 배수관 설치 방향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준공 시기를 맞추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밀어붙여 엉망진창 도로가 돼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배수관은 기존 물길을 살려 설치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은 수용할 계획이며, 도로와 관련된 민원 등은 현장을 확인한 뒤 보수공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인천기자 hun@kohoilbo.co.kr

중구 영종미개발지역 일부 도로 부실공사 민원 쏟아져 소유물방해제거 청구 소송도... 공기 맞추려다 ‘누더기’

새기 노린 간석파 폭력배들 8명 구속·61명 불구속 입건

핵심 조직원들이 빠진 인천 최대 폭력조직 ‘간석파’를 재건하려던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와해된 폭력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조직원을 모은 전 간석파 행동대장 김모(32)씨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 구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허모(25)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건태 기자 jus216@kohoilbo.co.kr

기호일보 지령 8000호를 축하합니다.

21세기 지방언론을 이끌어 나갈...

최고가 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래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경인지역의 아침을 여는 신문 기호일보의 지령 8000호를 축하드리며
우리들도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값진 땀방울을 흘릴 것입니다.

(주)에스에이이앤씨
회장 강전국

송현고 컬링, 3년 무적천하

<의정부>

신세계·이마트 대회 여고부 정상

제4회 신세계·이마트 전국컬링대회에서 의정부 송현고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또 남녀 중학부 의정부중과 의정부 민락중(여)이, 여자일반부는 경기도청이 나란히 부별 정상에 올랐다. 송현고는 1일 경북 의성컬링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고등부 결승에서 A팀과 B팀이 맞붙어 B팀이 8-2로 승리했다. 이로써 송현고는 2회 대회부터 3년 연속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선수권서 실업팀 꺾은 돌풍 주역 송현고 B팀, 같은 학교 A팀 만나 6점 차이로 '3년 연속 정상' 등극

의정부중·민락중 남녀중등 제패 여자일반부 경기도청 첫 우승컵

스킵 김민지와 리드 김수진, 세컨 양태이, 서드 김혜린 등 2학년이 주축이 된 송현고 B팀은 3학년이 주축이 이룬 송현고

A팀을 맞아 2엔드에 먼저 2점을 뽑아낸 뒤 3엔드에 1점을 내렸지만 4엔드에 2점, 5엔드와 6엔드에 각각 1점씩을 추가하며 6-1로 달아났다. 송현고 B팀은 7엔드에 1점을 내렸지만 8엔드와 9엔드에 또다시 1점씩을 추가하며 8-2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송현고 B팀은 올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16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4월 한국컬링선수권대회에서도 실업팀 선배들을 잇따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전날 열린 여자중학부 결승에서는 의정부 민락중이 '지역 라이벌' 의정부 회룡중과 접전을 펼친 끝에 7-6, 1점 차 신승을 거두고 2회 대회 우승 이후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지난해 회룡중이 우승을 내렸던 민락중은 1엔드와 3엔드에 각각 1점과 2점을 내주고 2엔드에 2점을 얻어 2-3으로 끌려갔지만 4엔드에 1점을 뽑아 3-3 동점을 만들었다. 5엔드에 대거 3점을 허용하며 3-6으로 끌려간 민락중은 6엔드에 2점, 7엔드에 1점을 뽑아 6-6을 만들어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8엔드에 1점을 추가해 7-6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남자중학부 의정부중도 같은 날 열린 결승전에서 서울 신구중을 9-6으로 꺾고 대회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4엔드까지 5-4, 1점 차로 앞서 가던 의정부중은 5엔드와 7엔드에 각각 1점씩을 뽑아 7-4로 점수 차를 벌였고, 이후 매 엔드마다 1점씩을 주고받으며 3점 차 승리를 지켰다. 여자일반부 결승에서는 경기도청이 현 국가대표인 경북체육회를 8-6으로 꺾고

처음으로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스킵 김은지를 비롯해 임민지, 이슬비, 염윤정, 설예은이 팀을 이룬 경기도청은 1엔드와 3엔드에 각 1점, 5엔드에 2점을 뽑고 2엔드와 4엔드에 각각 2점을 내줘 4-4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다. 6엔드에 1점을 내줘 4-5로 뒤진 경기도청은 7엔드에 다시 2점을 뽑아 6-5로 역전에 성공한 뒤 8엔드에 1점을 빼앗겨 6-6 동점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10엔드에서 승부에 쐬기를 박는 2점을 뽑아내며 승리했다.
심연구 기자 sims@khihoilbo.co.kr



최정, 투런포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프로야구 SK와 한화의 경기 1회초 1사 주자 1루에서 SK 최정이 투런 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 소식통

경기장애인체육회 고문 위촉식 가져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1일 2층 회의실에서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창립 이래 최초로 위촉된 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고문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 평택시 바르게살기협회 김현동 전 부회장, ㈜명일물류 박명식 대표이사, 법무법인 청목 이승민 변호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용은 전 사무처장, 노무법인 이수 이준혁 노무사, 에덴복지재단 정덕환 이사장 등이다. 이번 위촉은 법조계와 체육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고문을 위촉함으로써 향후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많은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심연구 기자 sims@khihoilbo.co.kr

안산, 경기장애인체전 종합 4위 등극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보치아·파크골프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태극·볼링·수영·게이트볼 등 11개 종목에서 우수한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금 17개, 은 11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도내 31개 시·군 종합 4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안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30일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에서 제종길 안산시장, 성준모 시의회 의장, 이흥업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임원과 가맹경기단체 선수·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개최하고, 선수단의 뛰어난 활약을 축하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hoilbo.co.kr

월드컵 메달 리듬 탄 손연재 이번엔 '스페인 과달라하라'

내일부터 리듬체조 7차 월드컵 올림픽 메달 경쟁자들 총출격

리듬체조 손연재(22·연세대)가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2개월여 앞두고 2주 연속 월드컵 금메달에 도전한다. 손연재는 3~5일(현지시간)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7차 월드컵에 출전한다. 4월 페사로 월드컵 이후 8주 만에 나갔던 지난달 27~29일 소피아 월드컵에 이어 2주 연속 월드컵 출전이다.

손연재는 소피아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동메달을 비롯해 종목별 결선 곤봉 금메달, 후프와 리본 은메달, 볼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전 종목 입상에 성공했다. 개인종합에서 자신의 역대 최고 점수인 74.200점을 기록했고, 후프에서도 18.650점으로 FIG 공인 대회 기준 최고점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소피아 월드컵 개인종합 금메달은 세계 최강자 야나 쿠드랴체바(75.750점·러시아), 은메달은 간나 리자트디노바(74.250점·우크라이나)였다. 그러나 쿠드랴체바는 곤봉 결선에서 수구를 떨어뜨리는 실수로 4위(18.250점)에 그쳤고, 리자트디노바

도 리본 결선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프로그램 시작 때 리본이 꼬이는 실수를 범했다. 반면 손연재는 큰 실수 없이 자신의 연기를 소화하며 감점요인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손연재는 4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월드컵 시즌 점수와 올림픽 점수는 확연하게 다르다. 올림픽이 좀 더 엄격해진다"며 "제 연기를 깔끔하게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체력훈련과 함께 연기의 완성도를 높이며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던 손연재로서는 지난 소피아 월드컵이 자신의 훈련 성과를 확인한 자리였다.

과달라하라 월드컵에는 리우 올림픽 메달 경쟁자들이 총출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세계 투톱이자 유력한 올림픽 금·은메달 후보인 야나 쿠드랴체바, 마르가리타 마문(이상 러시아)이 출전 신청을 했다. 또 손연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리자트디노바, 멜리티나 스타뉴타(벨라루스) 등도 연거푸 출전할 예정이다.

올림픽은 심리적인 부담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손연재가 이번 월드컵에서 경쟁자들의 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연기를 펼칠 경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배구팀 '정신무장 승리 비상'

선수들, 맹호부대 입소 극기훈련

프로배구 인천 대한항공이 2016~2017시즌 부활을 위해 군부대에 입소해 정신 무장부터 다지는 등 철저하게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2박 3일간 맹호부대(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입소해 극기훈련(사진)을 받았다. 선수들은 현역 군인들이 실시



하는 동일한 수준의 유격훈련을 받았다. 훈련은 유격체조와 산악장애물

코스, 참호 격투 등이 진행됐다.

구단 관계자는 "2016~2017시즌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 앞서 팀의 화합과 단결심을 배양할 수 있는 극기훈련을 실시했다"며 "지난 시즌 부족했던 팀워크를 보완하고, 선수들이 전장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맹호부대원으로서의 자부심을 통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유탣 기자 cyt@khihoilbo.co.kr

전자랜드 챔피언전 향해... 국가대표 가드 불렀다

KGC 박찬희 영입 등 '포지션 보강'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가 2016~2017시즌 선수 보강을 위해 한화원을 안양 KGC인삼공사로 보내고, 지난 시즌 맹활약한 박찬희를 영입하는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 둘은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박찬희는 2010년 신인 드래프

트 전체 1순위로 인삼공사에 입단했으며, 프로에서 200경기에 출전해 평균 8.6득점, 2.9리바운드, 3.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11~2012시즌 인삼공사의 정규리그 2위,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지난 시즌 팀의 정규리그 4위, 플레이오프 4강 진출에 이바지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 강력한 수비력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전자랜드는 또 서울 SK 센터 이대현과 함준후를 맞트레이드했고, 전주 KCC에 송수인을 보내는 대신 백업 가드 염승민을 영입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에이스급 가드가 없어 그동안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하지 못했다"며 "국가대표 가드를 영입한 만큼 외국인 선수 선발 때 포스트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최유탣 기자

수원월드컵관리재단, 스포츠센터 개선 시설 순회 점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월드컵재단)은 1일 경기장 주요 임대 시설인 월드컵스포츠센터의 시설 개선 조치 결과 확인 및 이용객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스포츠센터 전 업장에 대한 순회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개선과 보수 주요 사항은 각 업장별 보조 냉난방장치 등을 설치해 사계절 온도 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이용객이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더불어 중앙 냉난방 가동 최소화로 에너지 절감 극대화를 도

모했다. 실내수영장은 수질 관리 시스템의 안전장치 강화로 최상의 수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했고, 수영장 내에는 고급반 및 대화반 등을 운영 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스타팅대 추가 설치와 자유수영 회원의 급수별 이용례인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심연구 기자 sims@khihoilbo.co.kr

오늘의 경기

◇2일(목) ▶프로야구=KIA-LG(잠실) kt-롯데(사직) 두산-NC(마산) SK-한화(대전) 삼성-넥센(고척·이상 오후 6시 30분) ▶육상=전국육상경기 선수권대회, 한국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오전 10시·화성종합경기장) ▶축구=올림픽대표팀 4개국 친선대회 한국-나이지리아(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 ▶실업축구=선수권대회 부산-용인(양주 종합운동장) 천안-김해(이상 오후 4시·양구B구장) ▶양궁=세계대학선수권(몽골 울란바토르) ▶배드민턴=전국여름철정월선수권대회(오전 10시·충남 당진실내체육관 및 신성대학교 체육관)